

##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 일 시 : 2009년 2월 27일(금) 14:00~17:00
-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

## 일정표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회식

인사말 : 이명숙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40-15:00 주제발표 1

주 제 : 1929년 대공황기의 고통 : 40년 후 나타난  
종단적 연구 결과

발표자 : 김광웅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15:00-15:20 주제발표 2

주 제 : 경제위기와 아동발달 : 아동의 경제위기 인식과  
심리적 적응

발표자 : 박금주 교수(서울대 심리학과)

15:20-15:35 주제발표 3

주 제 : 경제위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고통 심층취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

발표자 : 김은하 기자(중앙일보 사회정책팀)

**15:35-15:50 주제발표 4**

주 제 : 2008년 경제위기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발표자 : 모상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50-16:10 휴 식**

**16:10-16:50 지정토론**

주 제 : 경제위기 하 빈곤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대책

토론자 : 구인회 교 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윤영득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이철섭 과 장(경기도청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이향란 소 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아동정책연구소)

유낙준 회 장(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16:50-17:00 종합정리**

## 목 차

### 주제발표

1. 1929년 대공황기의 고통 : 40년 후 나타난 종단적 연구 결과 ..... 1
2. 경제위기와 아동발달 : 아동의 경제위기 인식과 심리적 적응 ..... 15
3. 경제위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고통 심층취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 ..... 36
4. 2008년 경제위기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 49

### 지정토론

1. 경제위기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정책 ..... 101
2.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 104
3. 경기도 :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 111
4. 빈곤아동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 146
5.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건너서 성인의 삶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구나 ..... 153



## 주 제 발 표

1. 1929년 대공황기의 고통 : 40년 후 나타난 종단적 연구 결과
2. 경제위기와 아동발달 : 아동의 경제위기 인식과 심리적 적응
3. 경제위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고통 심층취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
4. 2008년 경제위기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 1929년 대공황기의 고통 : 40년 후 나타난 중단적 연구 결과

### - 경제적 파경破鏡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 - \*

김광웅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1. 머리글

지속적이고 만성적이고 전반적인 빈곤 貧困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빈곤이 가족해체 家族解體, 이혼 離婚, 신체적 학대 虐待, 아동유기 兒童遺棄 등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들(Bakke, 1940; Kadushin & Martin, 1981 etc.)에서 실증적 조사에 근거하여 논의해 왔다.

한편,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大恐慌이나 1997년 불어 닥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한파 寒波처럼, 경제적 호황 經濟的好況을 누리던 도중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경제적 파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이기 보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특수한 연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김 광웅, 1998). 그러나 우리가 10년 전 겪은 악몽의 경제위기를 요즘 또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경제위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또 상당히 자주, 경험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주제를 특수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인간발달 人間發達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파경과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Glen Elder(1974; 1978; 1979)이다. 사회학자인 Elder는 1962년 California Univ. -Berkeley 의 ‘인간발달연구소’에서 그로부터 31년 전인 1931년에 시작된

---

\* 이 원고는 1998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여 소개하는 것임.

한 종단적 縱斷的 연구 자료에 접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의 대상(1920~21년생)은 1962년 당시 40대였으며, 이들은 10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공황(1929~1939년)을 겪었던 사람들이었다. 당시 **California Oakland** 에 거주하던 167명의 연구대상 아동(**Elder**는 이를 **Oakland Cohort** 로 명명)과 그 가족들은 모두 똑같이 대공황을 겪었지만, 대공황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심리적 타격 打擊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Elder**는 이들을 10여 년간 추적하여 대공황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 생애 生涯의 전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사회학자였기 때문에, 당초엔 가족 家族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학에서 범하기 쉬운 사회적·제도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학의 주 관심사인 울창한 숲을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속에서 자라는 각각의 나무(개별 아동 個別 兒童)도 함께 연구하였다. 1974년에 출판된 이 연구 보고서는 대공황기의 경제적 파경 經濟的 破鏡이 인간발달 人間發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縱斷的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가 되었다. 이후 **Urie Bronfenbrenner**(1979)는 유명한 그의 ‘인간발달에 관한 생태학 生態學’ 연구에서 거시체계 巨視體系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 사례로 **Elder**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Elder**는 그 후 **Rockwell** 과 함께 1928~29년에 태어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종단적 연구자료를 분석하게 되었는데, **Oakland** 연구대상 보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던, 이들 연구대상(**Berkeley Cohort** 로 명명)은 대공황이 극에 달했던 시기(1932년)에 유아기 幼兒期를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Elder**는 대공황기에 10대 청소년기 靑少年期를 보낸 연구대상(**Oakland Cohort**)과 유아기 幼兒期를 보낸 연구대상(**Berkeley Cohort**)을 유사한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1978년에 보고되었고, 대공황기의 아동발달에 관한 1974년 연구결과를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lder**는 이후 경제적 압박 經濟的 壓迫과 가족 그리고 아동발달에 관련된 수편의 연구(1984; 1985 등)를 수행하였으며, 1989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유아기 幼兒期에 대공황을 겪은 **Oakland Cohort**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시도하여,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가족의 수입격감 收入激減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자녀의 신체적 매력, 그리고 자녀의 성(아들 또는

2 |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딸)이 어떤 중재적 역할 仲裁的 役割을 하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는 1974년과 1978년 연구를 보완하는 자료가 되었다.

**Elder**는 그 후에도 동료들과 함께 경제적 압박과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親社會的 행동과 부적응 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중재과정** 家族 仲裁過程 **모형**을 이론적으로 상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은 미국 중서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학년 남아들과 그 형제들이었다. 미국 중서부 농촌지역은 1980년대에 대단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역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and Whitbeck, L. B., 1992). **Elder** 등이 1970~80년대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Lempers, J. D., Lempers, C. D.** 그리고 **Simons, R. L.**(1989)은 미국 중서부 농업지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1980년대의 농업위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Elder** 등의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 위기가 청소년의 **우울** 憂鬱과 **고립감** 孤立感의 증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경제파탄** 經濟破綻으로 인한 **부모들의 양육부진** 養育不振과 **훈육의 일관성 결여** 一貫性 缺如가 청소년들의 **비행** 非行과 **약물남용** 藥物濫用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경제적 위기 또는 경제적 파탄이 가족관계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예를 들면; Angell, R. C., 1965;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1997; Conger, R. D. et al, 1990; Conger, R. D. et al, 1991; Conger, R. D. et al, 1993; Elder, G. H., Jr., Conger, R. D., 2000; Ho, C. H., 1995; Siegal, M., 1984; Lempers, J. D., Clark-Lempers, D., 1990; Lempers, J. D., Clark-Lempers, D., 1997; Skinner, M. L., Elder, G. H. & Conger, R. D., 1992; Xiaoja, G. H., 1994)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대공황과 1980년대 농업위기를 맞이했던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이다. 1970년대 영국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경제위기가 있었고, **Mexico**도 우리와 유사한 금융위기 金融危機를 맞이하여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수행된 경제위기와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IMF** 한

과를 겪었지만 아직 중단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체계적으로 보고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작금 昨今の 사태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변화와 문제를 예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만일 호의적 영향이 있다면 이를 극대화 極大化하는 사회적, 교육적, 가정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고에서는 **Elder** 등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위기가 가족과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몇 가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대공황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Oakland Cohort(1920~1921년생)에서 얻은 연구결과

1) 세계 대공황과 같은 거대한 사회 경제적 격변 激變과 침체 沈滯로 인한 타격은 가족 그리고 부모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단기적 短期的으로 또 장기적 長期的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부정적 否定的 측면과 긍정적 肯定的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2) 한 사회가 겪는 경제적 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소득 감소와 부도/ 파산 등)과 사회적 타격(가장의 실직과 가족 해체 등)을 받은 가정의 아동뿐 아니라, 전혀 그러한 타격 打擊을 받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 否定的으로 작용한다.

**Elder** 연구의 **Oakland** 표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공황 중 전혀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은(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집단)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 나타낸 모습은 오히려 부정적 否定的이었다. 그들은 대공황기의 특권층 特權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상 여러 가지 증후 症候와 적응력 결핍에서 노동계층의 자녀들과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대공황기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경험했던 중류계층의 다른 가정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교육적·직업적 성취수준 成就水準이 낮았고, 과음 過飲 등과 같은 정

4 |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비율이 거의 두 배(43% 대 24%)나 높았다.

3)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 仲裁하는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社會經濟的地位, 자녀의 연령 年齡, 자녀의 성 性, 가족관계 家族關係(가족 간 애정 愛情과 응집력 凝集力), 자녀의 성격 특성 性格特性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였다.

4) 사회경제적 위기에 의한 결핍가족 缺乏家族에서 나타난 단기적 효과는 부모들의 심한 정서적 불안 情緒的不安이었고, 이러한 긴장 緊張과 불안 不安은 특히 노동계층 勞動階層에서 현저하였다. 부모들이 경험한 긴장과 불안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급속하게 전달되었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불행 不幸을 감지하고 행복 幸福을 기원 祈願하는 반응을 보였다.

5) 다음으로 중요한 단기적 효과는 경제적으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위地位는 하락 下落하고 어머니의 지위는 우세 優勢하게 나타났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중요성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아버지의 지위는 낮게 평가하였다. Elder는 이러한 현상을 아버지의 “역할실패” 役割失敗로 설명하였다. 즉, 경제적 책임의 전이 轉移가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6) 어머니의 지위 상승 地位上昇과 더불어 부모 선호도 選好度에도 변화가 일어나, 경제적으로 결핍된 가족의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7) 경제적 역경 經濟的逆境은 결핍가정 아동의 또래 지향적 태도와 행동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친구 지향적 태도는 결핍된 가정의 남아 男兒에게서 두드러졌다.

8) 대공황기 아동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현저한 변화의 하나는 가사 家事에 대한 참여 參與와 집밖의 일에 대한 참여 정도의 변화였으며, 이는 남녀 男女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아 女兒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남아 男兒는 집밖의 일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였다. 경제적 결핍을 겪지 않은 가정의 여아는 50%가 집안일에 참여하였으나, 결핍가정의 여아는 90%가 집안일을 하였다. 남아들은 비결핍 가정의 42%가, 결핍가정의 65%가 월급 月給을 받는 바깥일에 참여하였다.

9) 아버지가 실직 失職한 가정의 아동들은 성인 지향적 태도 成人 指向的 態度가 증가하였다.

즉, 그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성인을 사귀려하고 성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성인 주변을 맴돌고, 성인의 행동을 동일시 同一視하고, 성인들에게 매우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10) 가정의 경제적 역경과 조기취업 早期就業은 아동들의 직업동기 職業動機와 포부 抱負를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는 동기가 증가하고, 고등학교 남아들은 야심적인 포부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가 형성되었다.

11) 사회경제적 위기와 결핍의 장기적 효과 長期的 效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성 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핍된 가정의 남아들은 비결핍 非缺乏 가정의 남아들보다 청소년 후기에 직업적 관심 職業的 關心이 성숙했고 확고한 직업적 결정 職業的 決定을 내렸다. 성인기에 들어서서는 보다 젊은 나이에 안정된 직업정신으로 착실한 경력을 쌓아갔으며, 직업 성취도 職業 成就度도 높아 청소년기에 선호했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적 장기효과는 공황기 이전에 중류층에서 자란 남아들에게서 보다 현저하였다. 그들은 정신적 건강과 정신적 능력에서도 어느 집단보다 우수하였으며, 가족 중심적이어서 사회활동 社會活動보다는 가족 활동 家族活動을 좋아하고 자기 자녀를 만족의 근원으로 받아들였다.

12) 반면, 노동계층의 남아들은 성인 成人이 된 후 중류층보다 불리한 상태에 빠졌다.

즉, 직업적 동기는 중류층과 마찬가지로 높았으나, 고등교육 高等教育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심리적 장애 心理的 障礙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과음자 過飲者의 비율은 43%에 이르렀다.

13) 경제적으로 고통 받았던 가정의 딸들은 아동기 때 자신의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모성적 역할 母性的 役割에 충실하였다.

대학에 들어간 비율은 비 결핍 非 缺乏가정의 딸들보다 낮았으나, 중상류층과 결혼한 비율은 높았으며, 결혼 후 또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자녀양육 子女養育에 충실하였다. 그들은 살림하기를 즐겼으며, 자녀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 3.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Berkeley Cohort(1928~1929년생)에서 얻은 연구결과

1)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연령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유아들은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역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더 심한 취약성 脆弱性을 갖게 된다.

Elder와 Rockwell(1978)은 1928~1929년에 태어나 대공황기에 유아기 幼兒期를 보낸 Berkely Cohort(1928~1929년 출생)를 대공황기에 청소년기 靑少年期를 보낸 Oakland Cohort(1920~1921년 출생)와 비교한 바, 가정의 경제적 고통은 청소년기에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중류층 남아들의 발달에는 긍정적 영향을 많이 준 반면,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남아들에게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유아기에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에도 자존감 自尊心이 낮았고, 역경 逆境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약속 約束을 기피하고, 자기패배의식 自己敗北意識과 피해의식 被害意識이 높았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남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일찍 직업전선에 들어갔으며 육체노동자 肉體勞動者의 비율이 높았고, 직장을 자주 옮기

는 등 불안정 不安定한 취업태도 就業態度를 보였다.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Berkely 표집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핍가정출신들은 비결핍가정 출신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많았으며(64% : 41%), 만성적 피로와 기력 부족(46% : 20%), 과음이나 습관성 음주(44% : 26%)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Berkely Cohort(즉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의 결과는 대공황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Oakland Cohort의 경우와는 정반대 正反對의 발달현상을 보여주었다.

2) 그러나, 유아기에 대공황을 경험했던 젊은이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은 아들(男兒)들에게서만 두드러진 것이었으며, 여아(딸)들에게서는, 그 정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Elder와 Rockwell(1978)의 분석에 의하면, Berkely Cohort의 여아들은 경제적으로 결핍된 가정에서 비교적 잘 적응했고, 오히려 경제적 결핍이 없었던 가정의 여아들보다 더 목표 지향적 目標 指向的이고 자기주장적 自己主張的이었으며, 자기만족 自己滿足을 추구할 줄 아는 젊은이가 되었다. 또한 가정내 경제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Berkely 여성들은 유능하고 인간적 자원이 풍부한 청소년으로 자라났다. 남여에 따른 이러한 차별적 결과에 대해, Elder는 아들과 딸이 갖게 되는 부모자녀관계 父母子女關係의 독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즉, 아들은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닥쳤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 疎遠해지고 유대 紐帶가 약해졌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도 받지 못한 반면,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유대가 약해진 만큼 어머니와의 유대는 더욱 강해진 탓이라고 설명하였다.

3)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중재변인은 부모의 부부관계 夫婦關係였다.

즉 아버지가 가족의 부양책임 扶養責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부자관계와 부녀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중재변수는 결혼관계의 강도 強度와 아내의 지지도 支持度였다. 부부사이가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지지적이었을 때에는 경제적 문제는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만하고 지지

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던 경제적 결핍 가정의 딸들은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딸들보다 어머니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 紐帶關係를 맺었다. 또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가정의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상실했으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욱 심한 손상을 입었다.

#### 4. 대공황기의 연구 이후 1990년대에 발표된 연구의 결과

1)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심각할 수 있다.

1970년대 이루어진 Elder의 초기연구에 이어 이루어진 추후연구(1985)에 의하면, 경제적 결핍을 경험했던 가정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다. 즉, 경제적 결핍 經濟的 缺乏으로 인한 아버지의 거절행동 拒絶行動은 딸에게 더 집중되었는데, 이는 주로 매력적인 신체적 조건(매력적인 피부색, 예쁜 몸매와 용모, 여성적 체격과 행동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심각했다. 매력적인 딸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대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은 가계소득의 감소에 따라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2) 청소년의 비행 非行과 약물복용 藥物服用 등은 가정 경제 파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공황 이후 미국의 최대 경제적 위기로 알려진 1980년대(주로 1980~1982) 중서부 농업지역에서 당시의 경제적 결핍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연구한 Lempers, J. D. 등(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 경제의 파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호행동 養護行動을 줄이고 반면 일관성 없는 훈육 訓育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부모 양육행동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약물복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우울과 소외감 疎外感은 가정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수입 감소나 고용불안과 같은 객관적 경제 지표는 생활비 조달의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통해서 부모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부모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1980년대 미국 중서부 농업지역의 경제적 위기와 청소년들의 적응과의 관계를 가족과정모델 **Family Process Model**로 검증한 **Conger, R .D.** 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우울 憂鬱과 부도덕성 不道德性이 증가하고, 이는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부모 양육행동에 손상을 입히게 되며, 이는 다시 청소년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부적응 不適應문제를 야기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경제적 고통에 의해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일으키고, 동시에 양육행동도 손상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악영향 惡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4) 부모의 실직 失職이나 하향 전직 下向轉職은 청소년들의 포부수준 抱負水準을 변화시킨다.

1980년대 초 미국 중서부지역에서 2~3년간 일시적으로 경제적 역경 經濟的逆境을 경험한 6학년 아동들의 사회화과정 社會化過程을 연구한 **Flanagan, C. A.**(1990)의 횡단적 조사연구 橫斷的 調查研究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실패로 인한 부모역할의 변화가 자녀의 성취동기 成就動機에 즉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Flanagan(1990)**은 동시에 수행한 2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아동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한 바, 부모의 급작스런 실직 失職이 청소년 자녀들의 발달적 요구를 손상시키기는 하지만, 부모의 재취업 후에는 부모-자녀관계에 생겼던 초기의 긴장이 해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와 교장들로부터 수집된 질적 연구 자료 質的 研究 資料를 분석한 바, 경제적 역경 經濟的 逆境 시기에는 학교도 기회균등 機會均等의 원칙 原則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현시키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5) 독일(서독)에서도 1980년대 초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가정을 종단적 연구로 조사한 바, 일시적일지라도 가계수입 家計收入의 급격한 감소 減少는 가족

의 결속 結束과 통합 統合을 손상시키고, 부부간의 갈등 葛藤과 긴장을 증가시키는 반면 어머니의 의사결정권 意思決定權은 강화되었다. 또한 부모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 가족결손 家族缺損으로 인한 손상 損傷은 청소년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自我尊重感을 떨어뜨린 반면 규칙 規則과 사회규범 社會規範을 무시하는 경향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Silbereisen, R. K. et al., 1990).

## 5. 맺는 말

이상에서,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밀어닥친 경제적 파탄과 역경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보기 위해서 1930년대 대공황 大恐慌과 1980년대 경제위기 經濟危機를 경험한 미국 등 서양에서 연구된 여러 자료를 요약해서 검토해 보았다.

우리의 사회 문화적 처지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대공황시의 미국 상황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연구결과를 그대로 일반화 一般化 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관련지어 추론해보면 몇 가지 가설적 결론 假說的 結論들을 도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첫째, 경제적 역경과 위기는 부모의 가출 家出 등 극단적인 가정파탄 家庭破綻으로부터 부부갈등 夫婦葛藤, 부부역할 父母役割과 지배구조 支配構造의 변화 등 가족 구조와 기능에 여러 형태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부모 행동 父母行動 및 양육태도 養育態度의 부정적 변화도 함께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가족결손과 부모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lder 등 미국의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경제적 위기가 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위기를 겪기 전 부부관계 夫婦關係와 부모자녀관계 父母子女關係 등 가족관계 家族關係가 얼마나 건강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중재적 역할 仲裁的 役割과 지지적 역할 支持的 役割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광웅 (1998). 경제위기와 아동. 한국아동학회 199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 한국아동학회.
- Angell, R. C. (1965). *The nature of human conflic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kke, E. W. (1940). *Citizens without work*.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ger, R. D.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3), 643-656.
- Conger, R. D., Lorenz F. O., Elder, G. H., Jr., Melby, J. N., Simons, R. L. (1991). A process model of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early adolescent alcohol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t*, 11(4), 430-449.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54.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Withbeck, L. B.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06-219.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Russell sage Foundation.
- Elder, G. H., Jr.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 H., Jr. (1979). Historical change in life patterns and personality. In P. Baltes and O. Brim. (Eds.). *Life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 pp.

- 117-159). New York: Academic Press.
- Elder, G. H., Jr., Caspi, A., & Van Nguyen, T. (1985). Resourceful and vulnerable children: Family influences in hard times. In R. Silbereisen & H. Eyferth(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pp. 167-186). Berlin: SpringerVerlag.
- Elder, G. H., Jr., Liker, J. K., & Cross, C.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 Baltes &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109-158). New York: Academic Press.
- Elder, G. H., Jr., Van Nguyen, T., & Caspi, A.(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Elder, G. H., Jr., and Rockwell, R. C. (1978). Economic depression and postwar opportunity in men's lives : A study of life patterns and health. In R. A. Simmons (Ed.).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pp. 240-303), Greenwich, Conn.: JAI Press .
- Elder, G. H., Jr., Conger, R. D. (2000). *Children of the land : Adversity and success in rural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anagan, C. A. (1990). Families and schools in hard times. In V. C. Macloyd and C. A. Flangan (Eds.). *Economic stress : Effect on family life and child developement*. (pp7~26). Sanfrancisco : Jossy - Bass.
- Ho, C. H., Lempers, J. D., Clark-Lempers, D. S. (1995).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on adolescent self-esteem: a family mediation model. *Adolescence*, 30(17), 117-131.
- Kadushin, A., & Main, M. (1981).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Lempers, J. D., Clark-Lempers, D. S. (1990). *Family economic stress, maternal*

- and paternal support and adolescent distress.* Iowa State University.
- Lempers, J. D., Clark-Lempers, D. S. (1997). Economic hardship, Family relationship, and adolescent distress : an Evaluation of a stress-Distress mediation model in mother-daughter and other-son dyads. *Adolescence.* 32.
- Siegal, M., Cowen, J. (1984). Appraisals of intervention : The mother's versus the culprit's behavior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evaluations of discipline techniques. *Child development.* 55(5), 1760-1766.
- Silberreisen, R. K., Walper, S., & Albrecht, H. T. (1990). Family income loss and economic hardship: Antecedents of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In V. C. Macloyd and C. A. Flangan (Eds.). *Economic stress : Effect on family life and child development.* (pp27 ~ 48). Sanfrancisco : Jossey - Bass.
- Skinner, M. L., Elder, G. H., Jr., Conger, R. D. (1992).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adolescent agg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3), 259-279.
- Xiaojia, G. E., Lorenz, F. O., Conger, R. D., Elder, G. H., Simon, R. L. (1994). Trajectorie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67-483.

## 경제 위기와 아동 발달: 아동의 경제위기 인식과 심리적 적응

곽금주교수(서울대 심리학과)

지난 외환위기 이후 2009년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전반에 걸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미 정부 고위 관계자나 ‘헤지펀드의 귀재’ 조지 소로스 등 여러 인사들이 공식석상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대공황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중앙일보 2009년 2월 21일자, “이번 경제 위기 대공황보다 심각할 수도”). 더욱이 우리 사회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취약 계층의 빈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아직 경제 위기의 정점이 어디인지 불분명하다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예측들은, 외국투자자들의 대규모 철수, 환율폭등, 증시폭락 등 고실업, 고물가, 고세금, 저성장으로 고통 받았던 1997년 IMF의 고통이 다시 오지 않을까 우려하게 만든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는 사회문제들, 즉 고용한파로 인한 정규직 입사의 어려움, 실직을 우려하는 이들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부모의 가출 등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성인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Conger & Conger, 2008). 즉 경제위기는 아동에게 가장 큰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적 박탈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궁핍, 생활환경, 가족 관계, 심리적 박탈은 부모의 심리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아동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상황을 악화시키고,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 양육을 통해 결과적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사회, 정서적 기능에 악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한 사회가 처한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미국과 핀란드 등 서구에서 진행되어 왔다(Conger & Elder, 1994; Elder, 1974; Elder & Caspi, 1988; Solantaus, Leinonen, & Punamäki, 2004).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이 직면하는 경제적 위기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부모의 스트레스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학문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처럼 경제위기에 당면하여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경제 위기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한 빈곤가정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고, 그 실태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 여러 경제 위기에 따른 아동발달

특정 계층의 경제적 곤란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나 우리나라의 IMF 등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닥쳐 온 사회적인 경제 위기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Conger & Conger, 2008).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격변인 경제위기와 아동발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서구에서 미국의 1930년대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나 1980년대 중서부 지역의 농업 위기(agricultural economy crisis) 등과 같은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미국 경제 대공황 관련 연구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서구 사회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다. 대공황 이전 1920년대의 미국 경제는 호황을 이루었으나 1929년 10월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호경기는 그 막을 내렸다. 이때부터 경기는 계속 후퇴를 거듭, 1932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1/4이 실직하는 등 대량 실업과 경제 불황이 촉발되었다. 불황의 영향은 즉시 유럽 경제에 파급되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산업국가에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Elder는 그와 같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시기의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Elder, 1974; Elder & Caspi, 1988). 이 연구는 처음에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과 오클랜드의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40년 이후 이들이 성인 및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평생발달을 탐색하여 왔다. 특히 후기 자료 수집에서는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까지 연구에 포함되었다(Seligman & Elder, 1987). Elder가 행한 연구의 결과는 본 세미나의 다른 발표자가 자세히 언급할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생략할 것이지만, 이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만 지적한다면, 경제위기가 실직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정과탄과 자녀의 발달상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즉 심한 재정적 손실을 경험한 아버지들은 점차 화를 더 잘 내게 되고 긴장도가 높아졌으며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것은 다시 자녀에 대하여 처벌적이고 독단적인 훈육을 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들, 특히 남아들의 경우에는 분노와 반항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며, 청소년기 소녀들의 경우에는 우울과 과잉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Elder, Liker, & Cross, 1984; Elder, Nguyen, & Caspi, 1985)

## 2) 미국 증서부 농업 지역 경제위기 관련 연구

1980년대 미국 증서부 농업지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견할만한 대규모 경제 공황이 있었다.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미국 경제는 낮은 무역 장벽으로 인해 활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가의 수입은 사상 최대로 증가하였으며 연방토지은행대출을 통한 토지매입도 증가추세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토지 가치가 하락하면서 농업 경제에서의 거품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다. 농촌 지역의 농장주들의 파산과 자살이 줄을 이었고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이 증서부 농업 위기(The Midwest Farm Crisis)를 경험하였다(Conger & Elder, 1994; Lempers, Lempers, & Simons, 1989). 그 결과 경제위기는 가계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제약 등 여러 경제적 압박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족 관계의 역동과 부모의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며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가족 경제스트레스 모형(Family Economics Stress Model)은 이후의 경제적 역경과 아동발달 간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Conger & Elder, 1994; Leinonen, Solantaus, & Punamäki, 2002; Solantaus, Leinonen, & Punamäki, 2004).

## 3) 핀란드 경제불황 관련 연구들

가장 최근의 경제위기와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 핀란드의 경제불황기에 이루어졌다(Conger & Conger, 2008). 당시 핀란드는 구소련과의 무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핀란드 경제는 심한 불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1990년에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며 1994-1995년까지 하향추세였다. 여러 경제적 지표들은 핀란드에서의 위기가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대공황과 그 심각성 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은 1990년에

3.4%였다가 1994년에 18%로 증가하였으며 국가 부채는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거의 6배가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는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였다(Heikkilä & Uusitalo, 1997). 이렇게 악화된 경제는 1995년 이후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핀란드의 연구자 Solantaus와 그녀의 동료 연구자들은 527명의 핀란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경제스트레스 모형을 검증하였다(Leinonen et al., 2002; Solantaus et al., 2004).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1990년에 일차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였으며 4년 후인 1994년에 다시 면접과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건강에 더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신건강,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상호작용도 측정하였다. 그리고 4년 동안 아동발달 지표에서 개인차의 변동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비해 사회보장체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핀란드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스트레스가 가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그 결과 가족 경제스트레스 모형은 핀란드 가정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즉 가계 수입에서의 저하는 증가된 경제적 압박과 부모의 심적 건강, 부부관계, 양육행동의 질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심적 건강에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경제 위기 이전 심적 건강을 통제한 뒤에도 경제적 위기는 아동의 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제 위기 이전의 심적 건강 문제들은 복잡한 양육행동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다시 경제 위기 동안 아동의 내현화된 문제와 외현화된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Leinonen et al., 2002; Solantaus et al., 2004).

지금까지 서구에서 있었던 경제불황기와 아동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고, 경제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등 진전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보고된 경제위기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한국 사회에 도래한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진단과 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 2. 경제 위기와 빈곤의 축적

앞서 살펴본 경제적 위기는, 곧 빈곤 가정의 수를 증가시키고 세계적으로 빈곤계층을 확대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Pieper와 Taylor의 연구(1998)에서는 멕시코, 칠레, 터키, 구 사회주의권의 동부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도 경제 위기 하에서 빈곤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Chossudovsky(1997)의 연구에서는 IMF 경제 위기 상황 아래에서 여러 나라들이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기업의 도산, 극심한 경기 침체, 그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외부적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변화 또한 우울, 자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 변화들은 1997년의 경제 위기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는 그 당시 우리 사회의 계층 변화를 유발시키는 위력을 발휘하였는데, 중산층이 빈곤계층에 흡수되면서 이른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빈곤계층의 수가 이 시기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이정우, 이성립(2001)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는 빈곤율, 즉 가구 규모별로 일정한 빈곤선(최저생계비)을 정해 놓고 가구소득이 그것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그 숫자를 세는 방법과 빈곤갭 즉, 빈곤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가구의 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액을 살펴보는 것, 마지막으로 Sen의 빈곤지수를 사용하였다. Sen의 빈곤지수는 빈곤율, 빈곤갭, 빈민 사이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종합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세 지표를 바탕으로 1993년~1998년까지의 빈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1998년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3.1%로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빈곤갭의 크기는 대체로 40%대에 있는데,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빈곤갭이 41%에서 47%로 증가하였다. 또한 Sen의 빈곤지수는 1993년에 8.9%였으나 계속 하락하여 1997년에는 4.6%까지 떨어졌다(이정우, 이성림, 2001). 또한 박천익(2001)의 연구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대량실업, 빈곤율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빈곤율이 1997년도에 11.0%에서 1998년도에는 19.9%로, 태국은 11.4%에서 12.9%로 한국 역시도 8.6%에서 19.2%로 급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경제 위기는 빈곤계층을 확대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경제 위기가 곧 빈곤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예증하는 것이며, 경제 위기에 대한 논의에서 빈곤문제의 고려 없이는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를 조명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논할 때 필요하며,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해 양산된 빈곤계층의 확대가 개개인의 영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 빈곤율과 빈곤갭(전체가구)

(단위: %)

연 도	구 분	빈 곤 율		빈 곤 갭 (가구소득)	빈 곤 갭 (최저생계비)	Sen 빈곤지수
		가구수	가구원수			
1993	전 체	14.96	13.37	2.39	45.80	8.85
	농어가	45.78	44.61	11.01	45.88	33.83
	대도시	10.79	9.72	1.74	44.91	6.24
	기 타	13.17	11.33	2.12	46.82	7.44
1994	전 체	16.05	13.89	2.34	39.36	8.63
	농어가	36.62	35.57	8.25	39.31	23.69
	대도시	10.74	9.49	1.46	34.71	5.33
	기 타	17.53	14.43	2.66	44.20	9.62
1995	전 체	13.07	10.01	1.74	49.38	6.84
	농어가	33.65	31.88	8.76	49.32	23.24
	대도시	8.11	6.41	1.13	49.92	4.28
	기 타	13.88	9.43	1.69	48.91	6.38
1996	전 체	10.80	8.71	1.31	43.69	5.63
	농어가	23.15	24.13	4.27	43.38	17.21
	대도시	6.78	5.57	0.84	41.64	3.39
	기 타	12.04	8.34	1.34	45.73	5.51
1997	전 체	10.19	7.33	0.96	40.57	4.56
	농어가	19.60	18.04	2.83	39.54	12.12
	대도시	6.18	4.59	0.60	40.82	2.76
	기타	12.40	7.82	1.09	40.92	4.89
1998	전 체	15.53	13.13	2.34	47.32	9.00
	농어가	23.57	22.91	3.88	41.45	16.18
	대도시	13.14	11.76	2.45	54.02	8.40
	기 타	15.74	11.91	1.87	41.93	7.70

출처: 이정우, 이성림, 2001 (대우 패널자료, 1993-1998)

### 3. 우리나라 빈곤 가정의 아동발달

#### 1)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9년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약 7,000 가구의 만 0세에서 18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2008년에 진

행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이봉주, 곽금주, 구인회, 김민화, 김선숙, 김혜란, 박혜준, 신혜은, 이강이, 이광호, 이순형, 정익중, 진미정, 2009)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에 사는 빈곤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7.8%, 차상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 아동청소년은 4.2%로,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12%에 이르고 있었다(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고서, 2009).

특히 0~8세까지 인지 및 언어 영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빈곤이 일찍부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인지기술, 수학적 사고력, 사회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 등을 측정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빈곤한 아동은 여러 영역의 인지발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발달을 보이고 있었다. 아동 인지발달의 소득수준별 분석을 살펴보면, 특히 기본인지기술(7세 이후), 수리적 사고력(4세 이후)에서 차상위 이상에서 차상위, 빈곤층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때 영아기까지는 빈곤층의 발달이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이상 계층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아동초기(3~4세) 이후 차이가 본격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소득수준과 연령(0~8세)에 따른 기본인지기술과 수리력 평균

연령	기본인지기술				수리적 사고력			
	소득수준			전체 M(SD)	소득수준			전체 M(SD)
	빈곤층 M(SD)	차상위 M(SD)	차상위 이상 M(SD)		빈곤층 M(SD)	차상위 M(SD)	차상위 이상 M(SD)	
<b>0세</b>	10.43 (2.96)	8.70 (3.71)	8.77 (3.71)	8.84 (3.69)	0.41 (0.70)	0.38 (0.70)	0.19 (0.48)	0.21 (0.50)
(명)	18,466	16,262	375,252	409,980	18,466	16,262	375,252	409,980
<b>1세</b>	16.21 (3.36)	16.08 (2.15)	16.68 (2.65)	16.63 (2.68)	2.28 (1.68)	1.90 (1.11)	2.31 (1.59)	2.29 (1.58)
(명)	27,284	22,675	468,933	518,892	27,284	22,675	468,933	518,892
<b>2세</b>	19.22 (3.20)	20.22 (2.56)	20.69 (2.60)	20.55 (2.68)	5.10 (2.27)	4.83 (2.14)	5.71 (2.07)	5.62 (2.11)
(명)	35,366	22,353	379,554	437,274	35,366	22,353	379,554	437,274
<b>3세</b>	22.66 (4.26)	21.89 (2.20)	23.77 (2.05)	23.66 (2.22)	8.01 (2.75)	6.75 (2.48)	8.98 (2.08)	8.87 (2.17)
(명)	18,402	14,409	430,427	463,238	18,402	14,409	430,427	463,238
<b>4세</b>	17.54 (1.87)	17.60 (1.06)	17.85 (1.24)	17.83 (1.28)	10.42 (2.94)	10.99 (1.71)	11.28 (2.10)	11.22 (2.15)
(명)	23,532	14,849	422,725	461,106	23,532	14,849	422,725	461,106
<b>5세</b>	19.49 (1.43)	19.65 (1.56)	20.20 (1.06)	20.14 (1.12)	14.18 (2.26)	14.54 (2.55)	14.88 (2.16)	14.83 (2.19)
(명)	23,921	22,526	435,880	482,327	23,921	22,526	435,880	482,327
<b>6세</b>	10.63 (0.57)	10.49 (0.79)	10.59 (0.66)	10.56 (0.71)	18.23 (1.96)	18.73 (1.91)	18.99 (1.86)	18.86 (1.89)
(명)	33,513	217,453	368,080	619,045	33,513	217,453	368,080	619,045
<b>7세</b>	11.28 (0.72)	11.30 (0.93)	11.40 (0.83)	11.36 (0.86)	20.34 (1.89)	20.97 (1.76)	21.15 (1.71)	21.04 (1.75)
(명)	42,848	188,407	409,831	641,086	42,848	188,407	409,831	641,086
<b>8세</b>	3.42 (0.75)	3.61 (0.67)	3.58 (0.61)	3.58 (0.64)	22.73 (1.60)	22.88 (1.34)	22.90 (1.19)	22.88 (1.26)
(명)	32,768	137,968	313,877	484,613	32,768	137,968	313,877	484,613
총 (명)	256,100	656,902	3,604,559	4,517,561	256,100	656,902	3,604,559	4,517,561

인지발달과 함께 아동의 언어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조사하였다. 언어발달 지표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차상위집단과 빈곤층 집단의 점수가 차상위이상계층의 점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발달에 빈곤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 소득수준과 연령(0~8세)에 따른 말하기와 읽기 평균

연령	말하기				읽기			
	소득수준			전체 M(SD)	소득수준			전체 M(SD)
	빈곤층 M(SD)	차상위 M(SD)	차상위 이상 M(SD)		빈곤층 M(SD)	차상위 M(SD)	차상위 이상 M(SD)	
<b>0세</b>	2.89 (1.63)	2.31 (0.94)	2.45 (1.49)	2.46 (1.48)	1.78 (1.84)	1.01 (1.14)	1.29 (1.60)	1.30 (1.60)
(명)	18,466	16,262	375,252	409,980	18,466	16,262	375,252	409,980
<b>1세</b>	6.42 (2.60)	6.18 (1.71)	6.33 (2.28)	6.33 (2.28)	4.23 (2.35)	4.40 (1.45)	4.56 (2.15)	4.53 (2.14)
(명)	27,284	22,675	468,933	518,892	27,284	22,675	468,933	518,892
<b>2세</b>	10.03 (2.69)	9.95 (2.96)	11.03 (2.75)	10.89 (2.78)	6.07 (1.70)	6.26 (1.81)	6.91 (1.51)	6.81 (1.56)
(명)	35,366	22,353	379,554	437,274	35,366	22,353	379,554	437,274
<b>3세</b>	14.58 (3.34)	13.30 (3.20)	15.34 (2.87)	15.24 (2.92)	8.26 (1.59)	7.58 (1.05)	8.54 (1.23)	8.50 (1.25)
(명)	18,402	14,409	430,427	463,238	18,402	14,409	430,427	463,238
<b>4세</b>	16.36 (2.47)	17.38 (1.44)	18.28 (1.77)	18.15 (1.86)	9.70 (0.95)	10.28 (0.84)	10.32 (0.94)	10.29 (0.95)
(명)	23,532	14,849	422,725	461,106	23,532	14,849	422,725	461,106
<b>5세</b>	19.72 (1.98)	19.87 (2.83)	20.89 (1.38)	20.78 (1.55)	11.88 (1.23)	11.48 (1.48)	12.52 (0.87)	12.43 (0.96)
(명)	23,921	22,526	435,880	482,327	23,921	22,526	435,880	482,327
<b>6세</b>	21.59 (1.51)	21.82 (1.21)	22.15 (1.15)	22.00 (1.21)	13.13 (0.93)	13.39 (0.74)	13.49 (0.81)	13.44 (0.80)
(명)	33,513	217,453	368,080	619,045	33,513	217,453	368,080	619,045
<b>7세</b>	22.33 (1.04)	22.54 (0.79)	22.71 (0.66)	22.63 (0.74)	14.23 (0.98)	14.42 (0.97)	14.51 (0.89)	14.47 (0.92)
(명)	42,848	188,407	409,831	641,086	42,848	188,407	409,831	641,086
<b>8세</b>	22.86 (0.35)	22.83 (0.37)	22.87 (0.34)	22.86 (0.35)	14.67 (0.67)	14.75 (0.61)	14.80 (0.47)	14.78 (0.53)
(명)	32,768	137,968	313,877	484,613	32,768	137,968	313,877	484,613
총 (명)	256,100	656,902	3,604,559	4,517,561	256,100	656,902	3,604,559	4,517,561

이 조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는, 빈곤층과 차상위층 두 집단의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는 환경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차상위 이상 층의 아동들이 성장하는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정부의 생계보조를 받으므로 극단적 복지 부채를 면한 상태이지만 차상위집단은 정부의 보조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 결과 아동 발달이 빈곤층의 발달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언어, 인지,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있어 지연된다는 결과는 서구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Ariiaga,

Fenson, Cronan, & Pethick, 1998; Brooks-Gunn & Duncan, 1997).

또한 이러한 발달지연이 누적되고 경제적 결핍이 반복될 경우 발달적 결과는 보다 부정적일 수 있다. 아동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빈곤 아동의 발달이 그렇지 않은 아동의 발달과 뚜렷한 차이를 아동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압박의 시기와 기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종단연구(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3)에 따르면, 영아기(0-3세)에 빈곤을 경험하는 것보다 영아기 이후 취학전 시기~학령 초기에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일시적인 빈곤의 경험보다는 지속적인 빈곤 경험이 아동으로 하여금 만성적으로 낮은 질의 아동 양육 환경에 처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낮은 인지 수행과 많은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3; Ramey & Finkelstein, 1981). 따라서 이 연령대(3-4세)의 빈곤 아동 발달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종단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빈곤 아동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발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빈곤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압박이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초기와 학령초기의 빈곤 환경은 가정환경의 질과 물리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압박과 고통은 부모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과의 온정적 상호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아동발달에 효과적인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심리학 연구실에서는 만 3-8세를 대상으로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종단연구(곽금주, 박순영, 2005-2011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과제번호 J09502, J01302)

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약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그 중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 중 빈곤 가정 79명과 비빈곤 가정 6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행동, 부모양육스트레스, 가정환경자극, 사회적 지원, 아동발달(사회성, 언어: 글자/숫자, 어휘, 담화)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빈곤집단 어머니들은 비빈곤집단 어머니와 비교해서 아동과 상호작용 시 행동이나 활동에 대한 즉각적 반응과 표현 정도가 낮았으며, 아동이 흥미롭도록 독창적인 놀이나 활동을 하는 경향도 적었다(김정미, 곽금주, 2007). 또한 빈곤집단 어머니들은 비빈곤집단 어머니들보다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 건강상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발달을 비교하였을 때 빈곤아동이 비빈곤아동보다 더 적은 수의 어휘발달을 보였으며(이지연, 곽금주, 2008), 적은 수의 의미단위가 포함되고 질적으로 뒤떨어지는 담화를 형성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정현진, 곽금주, 출판중).

한편 빈곤과 함께 가정환경 자극이 아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김정미, 곽금주, 2007). 우선, 빈곤과 비빈곤집단 내에서 다시 가정환경 자극 수준을 집단 평균 점수를 준거로 가정환경 자극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나눈 다음 발달결과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빈곤집단에서는 글자와 숫자 발달에서만 가정환경 자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빈곤집단의 경우 사회성, 언어발달, 글자와 숫자 발달 모두에서 가정환경자극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가정환경의 자극수준이 비빈곤아동의 경우보다 빈곤 아동의 발달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님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압박으로 물리적 가정환경의 자극수준이 저하될 때, 비빈곤층 아동보다는 빈곤층 아동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 4. 경제위기와 빈곤 가정에서의 보호요인: 낙관성

앞서 살펴본 저소득층 가정 아동 연구 결과에서처럼, 경제위기는 아동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이런 부정적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Elder(1974)는 경제 대공황 연구를 통해 경제위기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발달 결과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결핍된 가정의 남아들은 비결핍 아동들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결핍된 가정의 여아들은 성인기 자녀의 가치를 중시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경제 위기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를 경험한 빈곤 가정의 아동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변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낳게 한다. Seligman과 Elder(1987)는, 그 보호요인 중 하나를 낙관적 인식으로 보았다. 낙관적 인식은 경제위기와 같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반응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역경을 낙관적으로 지각하는 이들은 실패를 일시적이고 특별한 사례로 정의하는 반면, 비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Seligman, Reivich, Jaycox, & Gillham, 1995). 이처럼 개인이 보이는 낙관적 인식은 신체적 건강과 질병 등 여러 가지 역경상황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Scheier & Carver, 1993).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낙관적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불쾌한 생활사건에 대해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다.

##### 1) 경제위기를 경험한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의 낙관적 인식조사

경제 위기에 대한 낙관적 인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개발원과 서울대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2009)이 함께 실시한 조사에

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낙관적 인식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저소득청소년 교복지원사업” 적용 지역의 초등학교생 406명, 중학생 408명이 포함되었고,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대한 문항,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지각에 대한 문항, 자존감과 우울에 관한 문항, 가정생활변화에 대한 문항, 학교생활에 대한 문항 등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의 주된 목적은 낙관적 인식과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통한 경향 파악에 있었으나 우선 현 경제위기를 조사에 참여한 전체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 경제위기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현재 경제위기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아동은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모두 합하여 153명(전체의 19%)이었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아동은 538명(전체의 66%)이었다. 이를 합하면 대부분의 아동이 경제위기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현재의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낙관적 인식 여부를 측정하였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보는가와 경제위기 이후 심리적 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등 낙관적 인식을 6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낙관적 인식 총점을 기준으로 낙관적 인식 상위집단(상위 25%, 217명)과 하위집단(하위 25%, 232명)으로 구분하고 여러 심리적 적응 측정치에서의 집단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경제위기 이후 개인의 심리적 적응(자존감과 우울), 가정에서의 적응, 학교에서의 적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제위기 이후 아동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집단차이 검증 결과, 상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자존감이 높고, 덜 우울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비행점수에서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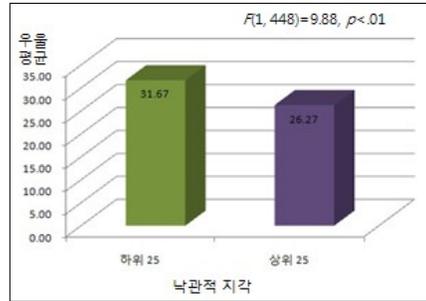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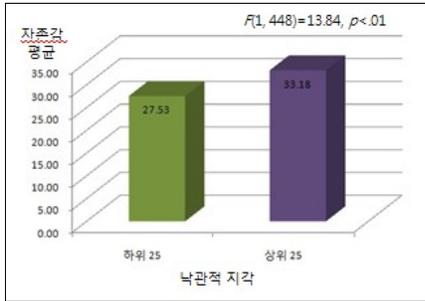


그림 1. 집단에 따른 자존감 평균

그림 2. 집단에 따른 우울 평균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 낙관적 인식 상위 집단은 경제위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였으며, 부모가 애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부모가 자신의 일상 일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3. 집단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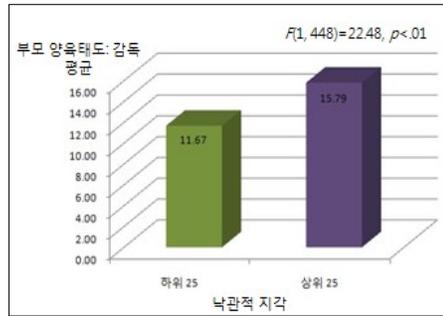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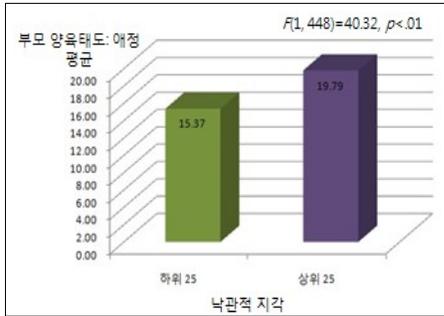


그림 4. 집단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 평균  
그림 5. 집단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평균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 낙관적 인식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보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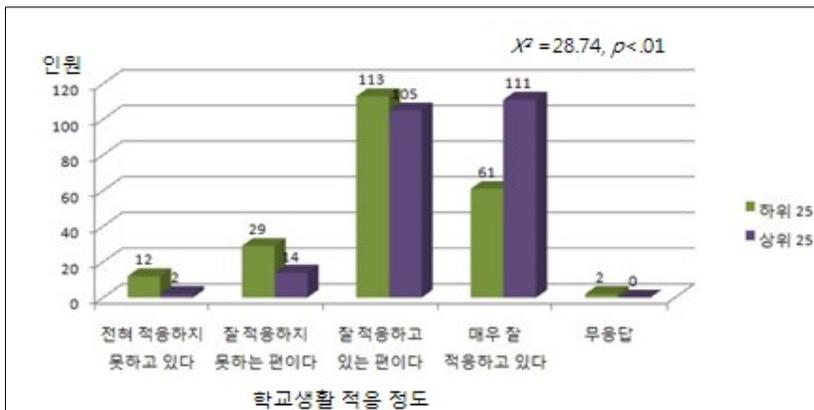


그림 6. 집단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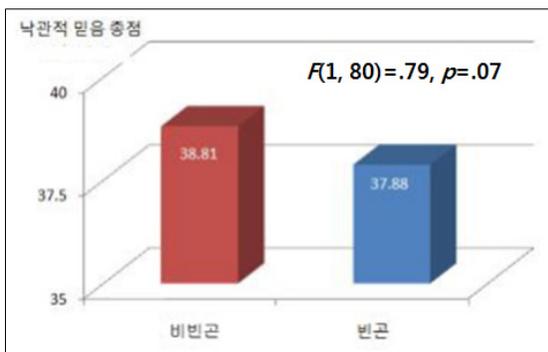
이처럼 낙관적 인식을 할수록 경제위기 이후 심리적 적응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낙관적 인식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경제위기를 적게 경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경제위기 이후 가계수입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조사는 몇 가지 추

가적으로 확인될 여지를 지닌다. 낙관적 인식이 높은 집단은 무조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지적 미숙과 낙관적 인식 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 조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검증할 자료가 함께 수집되지 못하였다.

## 2)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낙관성 비교

앞서 빈곤 아동 중 낙관성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경제 위기에 대처할 제반의 심리적 능력이 강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아주 어릴 때부터 빈곤 아동이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혹은 중산층 아동에 비해 낙관성의 절대적 수치가 낮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과 계층 간 관련성(김연수, 곽금주, 작성 중)을 살펴보기 위해, 4세 아동 중 빈곤 아동 40명과 비빈곤 아동 41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낙관적 믿음의 정도에서 계층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발달 초기인 만 4세에서는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맺음말

앞서 언급된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빈곤 아동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경제 위기에 대한 심리적 적응력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4세 아동의 경우 비빈곤 계층과 빈곤계층 사이에 낙관적 믿음에서의 차이가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아동들 역시 현재의 경제 위기와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4세라는 연령이 아직 현실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은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낙관성은 이후의 발달을 통해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빈곤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 가정환경자극,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성과 언어성 등 많은 측면에서 현저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핍된 환경과 경제위기 등의 역경이 아동의 미래까지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주는 일차적인 보호요인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낙관성, 긍정성이 될 것이다.

경제 위기가 아동발달에 끼치는 많은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처한 경제적 결핍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낙관성과 긍정성이 이후 발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낙관적 인식과 긍정적인 생각이야말로 경제위기와 빈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 2의 국난이라던 IMF도 잘 견뎌냈고 한층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다. 현재의 경제적 불황 역시 심리적 불황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남은 인생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좌절과 역경을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심리적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니체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나를 강하게 만든다(whatever doesn't kill you simply makes you stronger)’고 하지 않았던가 (곽금주, 매일경제, 2009. 01. 08).

## 참고문헌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19.
- 김정미, 곽금주 (2007). 취학 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한국아동학회지*, 28(4), 305-317.
- 박천익 (2001).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9(3), 1-28.
- 박천익 (2002).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와 빈곤정책. *공공경제*, 7, 71-102.
- 이봉주, 곽금주, 구인회, 김민화, 김선숙, 김혜란, 박혜준, 신혜은, 이강이, 이광호, 이순형, 정의중, 진미정 (2009).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이정우, 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2), 79-109.
- 이지연, 곽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정현진, 곽금주 (출판 중). Four-year-old children's narrative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ernal verbal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 from poverty and non-poverty.
- Chossudovsky, M. (1997).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Impacts of IMF and World Bank Reforms*, Third World Network. Zed Books: London.
- Conger, R. C., & Conger, K. J. (2008). Understanding the processes through which economic hardship influences families and children. In D. R. Crane & T. B. Heaton (Eds.), *Handbook of families & poverty*. pp. 64-81.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Conger, R. D., & Elder, G. H., J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Hillsdale, NJ: Aldine.

- Elder, G.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 van Nguyen, T., &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2), 361-375.
- Heinonen, K., Raikkonen, K., Matthews, K., Raitakari, M. F., Raitakari, O. T., Pulkki, L. P., & Keltikangas-Jarvinen, L. (2006). Socioeconomic status in childhood and adulthood: associations with dispositional optimism and pessimism over 21-Year Follow-up. *Journal of Personality*, 74(4), 1111-1126.
- Leinonen, J. A., Solantaus, T. S., & Punamäki, R. (2002). The specific mediating paths between economic hardship and the quality of paren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423-435.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Pieper, U., Taylor, L. (1998). "The Revival of the Liberal Creed: The IMF, The World Bank, and Inequality in a Globalized Economy," in Dean Baker et al.(Eds.), *Globalization and Progressive Econom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lantaus, T., Leinonen, J., & Punamäki, R. (2004). Children's Mental Health in Times of Economic Recession: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Economic Stress Model in Finland. *Developmental Psychology*, 40(3), 412-429.

## 경제위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고통 심층취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

김은하기자(중앙일보 사회정책팀)

### 두 번 버려진 아이들 <상> 10년 만에 다시 고통

실직 아버지 폭언에 가출 ... “꿈이요? 하루 끼니 때울 걱정뿐”  
중졸·고교중퇴가 대부분 ... 직업 갖기도 어려워  
사회적 안전망은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전부  
가출 1년 새 2.5배 ... 집에선 “데려갈 생각 없다”

8일 오후 5시 거리가 어둑어둑해지고 네온사인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자 서울 천호동 로테오 거리에 자리 잡은 ‘이동 청소년 쉼터’에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가출해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10대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시간에 이 아이들은 ‘아침잠’에서 깨어나 PC방이나 노래방 등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노래방에 갈 돈이 없으면 쉼터를 찾는다. 대부분 이곳 ‘단골’들이다.

정수(17·가명)도 그중 하나다. 또래 아이들처럼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은 없다. 대신 오늘 하루 끼니를 어떻게 때울지가 걱정이다. 사실 돈 문제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별로 낯설진 않다. 초등학교 입학 무렵 닥친 외환위기로 정수는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떨어진다는 게 뭔지 알게 됐다. 건축업을 하던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엄마는 집을 나갔다. 그래도 당시엔 “재기하겠다”고 다짐하는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있던 터라 정수는



8일 밤 9시 30분. 집을 나온 서연이는 갈 곳이 없다. 서울 신림역 사거리 유흥가 한복판에 서연이가 혼자 서 있다. [김경빈 기자]

완전하진 않아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두 번째 맞은 경제위기는 정수를 아예 ‘거리의 아이’로 내몰았다. 지난해 말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딱 끊기자 아버지는 집에 머물며 하루 종일 화만 냈다. “집에서 빈둥거리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라”는 폭언은 예사였다. 결국 가출을 택했다. 중졸 학력이 전부인 정수에겐 꿈이 없다. 아니, 내일도 없다. 당장 오늘 필요한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유일한 관심사다.

외환위기 때 가정해체를 겪은 아이들은 10년 동안 사실상 가족·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었다. 자립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경제위기는 가혹하기 그지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1월 위기 청소년 34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외환위기 때 가정해체를 경험했고 그 이후 방치됐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출·가정해체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접수된 청소년 가출 신고는 2007년 1만8636건에서 2008년 5만 322건(11월 현재)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본다.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집으로 연락해도



이자형 (16·가명)군이 8일 천호역 인근 분식집에서 청소년 컴퓨터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다. 이군의 손은 겨울바람으로 심하게 터 있다. 이군은 20일 정도 제대로 씻지 못했다고 한다.

아빠는 은주를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학교를 빼먹어도 아빠나 선생님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다. 2008년 아빠가 운영하던 인력사무소가 다시 문을 닫게 되자 은주는 집을 나와 전국의 컴퓨터를 전전하고 있다.

“데려갈 생각이 없다”는 답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에게 가족은 먼 얘기다.

갈 데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 전국의 청소년 컴퓨터를 전전하는 아이들도 있다. 은주(17·가명)도 그런 아이다. 1999년 아빠의 노래방 사업이 망하자 엄마는 가출했다. 겨우 경제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 10년 새 두 번 추락 겪은 아이들(가명)

이서연(17) 1998년 엄마 실직, 외삼촌과 동거 .....> 2008년 11월 가출

이지수(17) 1997년 엄마 빚지고 가출 .....> 2008년 11월 가출

김지원(15) 2000년 아버지의 정육점 망한 후 부모 이혼 .....> 2008년 9월 가출

김하은(15) 1999년 아버지 실직, 엄마가  
보험설계사로 생활비 대다 2000년 이혼 .....> 2008년 12월 가출

정은주(17) 1999년 아버지의 노래방 망한 후 엄마 가출 .....> 2008년 아버지 운영하던  
인력사무소 불황으로 생활고, 가출

양희수(15) 1999년 .....> 2001년 돌봐주던 할머니  
부모 이혼 .....> 사망, 아버지와 동거 .....> 2008년 7월 아버지와 불화로 가출

자료:중앙일보 취재진이 금천청소년쉼터에 들어온 청소년 10명 면접\*

전국 77개의 쉼터는 연간 1만2000~1만3000명의 청소년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2년까지 수용한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쉼터를 찾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톨릭대 조성호(심리학과) 교수는 “가출 청소년은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리다 보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며 “그러나 쉼터는 일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결국 빈곤·무지를 대물림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리의 10대들은 대부분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거나 고교 중퇴 학력이 전부다. 이 학력으로는 나이를 먹어도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나쁜 유혹에 쉽게 빠진다.

대전대 남미애(사회복지) 교수팀의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 조사’(2007년)에 따르면 쉼터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 대부분이 구걸·앵벌이(78.8%·복수 응답)를 하거나, 훔치거나 빼앗아(31.8%·복수 응답) 용돈·생활비

를 마련했다. 아르바이트할 때 용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는 응답도 8.5%나 됐다. 숙명여대 김광웅(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가정경제의 파탄이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육으로 이어져 결국 청소년들의 비행을 초래했다”며 “아동·청소년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9. 1.14일자>

## 두 번 버려진 아이들 <중> 보육원이 더 좋아요

엄마·할머니에 버림받은 상처 … “날 품어 주는 보육원이 좋아요”  
친인척 손 몇 번 거친 후 복지시설 들어와  
짖은 버려짐에 불안감 … 주위 눈치 많이 봐

밤마다 차가운 벤치나 공중화장실을 전전하던 주영이(14·가명)는 지난달 가출 6개월 만에 서울 금천청소년쉼터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다. 다행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던 모습은 최근 없어졌다. 서울 살던 주영이는 2년 전 부모가 이혼하면서 숙초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믿었던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주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것도 잠시. 할머니는 주영이를 막 대했다. 몇 폰 안 되는 학교 준비물 살 돈조차 받은 기억이 없다. “나가 죽으라”는 폭언은 예사였다.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거리를 전전하다 쉼터를 찾았다. 먹지 못해 또래보다 마르고 얼굴에는 버짐이 피었다. 쉼터에서 할머니에게 연락했을 땐 “찾아갈 생각이 없으니 거기서 맡아달라”는 말만 돌아왔다.



13일 서울 수서동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김서진(3·가명)군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서진이는 지난달 이 시설 현관 앞에서 보호자의 아무런 메시지 없이 발견됐다.  
[김경빈 기자]

주영이는 “차라리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끔찍한 할머니 집으로 가느 나 나를 걱정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이곳이 더 좋다”고 말했다. 주영이는 다음 달 장기 보육시설로 간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보육시설로 가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외환위기 때처럼 실직이나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아이를 시설로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아동복지센터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는 지난해 1~3월 88명, 7~9월 119명이었으나 10~12월에는 188명으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파르게 찾아왔다.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황용규 회장은 “외환위기 때는 1년가량 지난 뒤 애들을 보육시설로 보냈으나 이번에는 일찌감치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저출산 때문에 보육시설로 오는 아이가 줄어 인력이나 시설을 줄여왔는데 이제 시설을 늘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주영이처럼 외환위기 때나 그 이후 부모한테 버림받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보육원으로 버려진 애들도 적지 않다. 인천보육원 김영길 원장은 “2007년까지 애들이 줄어들다 지난해 하반기에 10명가량 들어왔다”면서 “부모→친인척→보육시설 과정을 거친 애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상담전화를 한 사람의 10%가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나 이모·고모 등 친인척이었다.

“애 부모 형편이 여의치 않아 데리고 있었는데 결혼하게 돼서 더 이상 말을 수가 없다”는 고모, “엉겁결에 떠맡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부모와 연락이 안 돼 시설로 보내야겠다”는 이모, “딸이 이혼하면서 맡기고 갔는데 아파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할머니...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한 번 버림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상처가 깊어진다.

이런 아이들은 유난히 먹는 것에 집착한다. 서울 사당동 상록보육원 부청하 원장은 “음식에 대한 집착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처음에만 먹을 걸 주고 나중에 안 주면 어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에 가서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경우도 많다. 일부 아동은 “집

보다 보육원이 더 좋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상록보육원에 온 지현(10·가명), 지희(9·가명) 남매는 6년 전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부모가 이혼했다.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며 남매를 키웠다. 식당 방 한쪽에서 살던 엄마는 아이들이 커가자 보육원에 맡겼다.

지현이는 “엄마와 살 때보다 더 좋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엄마랑 살 때는 학원을 그만뒀는데 여기 와서는 매일 영어·수학 학원을 다니고 학습지를 받아 보니까 성적이 올랐다”고 말했다. 지현이는 엄마와 살 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보육원에 온 뒤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학원에 다닌다. 지현이는 “2학기 기말고사 4과목 중 2과목을 100점 받아 반에서 2등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연구위원은 “해체 위험이 높은 가족을 지원해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9. 1.15일자>

## 두 번 버려진 아이들 <하>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빈곤층 부모 “끝까지 치료받을 돈 없다” 병원 안 가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부족해 제 역할 못 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나오세요.”

서울 개봉동 지역아동센터 박은성 원장은 얼마 전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다. 공부방에 나오는 현수(9·가명)였다. ‘혹시 내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나’ 박 원장은 잠깐 당황했다. 이날은 공부방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가기로 돼 있었다. 수첩을 확인하곤 가슴을 쓸어내렸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아동복지센터로 온 철민이(12·가명)가 그린 그림에는 붉은 글씨로 쓴 "죽어"라는 말이 쉽게 등장한다. 철민이와 동생 수진이(10·가명)는 이곳에 오기 전 아버지와 살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김경빈 기자]

현수는 중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불안장애 등 복합적인 심리질환을 앓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다. 요즘은 증세가 심해졌다. 몇 번씩 일러주고 다짐을 받아도 그뿐이다.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다. 그러더니 엉뚱한 전화를 한 것이다.

현수 부모는 현수가 더 어릴 적에 이혼했다. 엄마가 공장 일용직으로 일

하면서 형(14)과 현수를 키우고 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친척의 도움을 받아 근근이 살아 왔으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지원이 끊겼다. 엄마는 더 늦게까지 일한다. 엄마가 올 때까지 현수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다. 이렇게 방치되면서 현수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다. 보다 못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가 공부방을 통해 현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치료비를 지원해줄 테니 현수를 데리고 오세요.”

“한두 번은 지원해줄지 몰라도 그 후엔 결국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끝까지 치료받을 돈이 없으니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아요.” (현수 엄마)

서울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 이경영 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아이 부모에게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전화를 해도 열에 아홉은 치료를 거부한다”며 “완치하려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들이 월 수십만원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빈곤층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빠진 아이가 많다. 그나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의료비 혜택이 있지만 바로 위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수네가 그렇다. 금융위기에 몰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하루 벌어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고 어떤 경우는 의지마저 없다. 통상 저소득층 아이들이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데다 부모의 무관심까지 겹쳐 치료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지난해 저소득층 아동 1만5709명을 검사한 결과 빈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불안·우울, 비행행동, 공격성 등의 성향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창신동 해송지역아동센터 김미아 원장은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대부분이 ADHD나 공격 성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아동학과 김광웅 교수도 “경제위기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커지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급속히 전달된다”고 말했다.

윤지(8·가명)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부모 이혼 후 윤지는 아빠·새엄마와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말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새엄마가 가출하자 그 후 방치됐다. 음주와 도박에 빠진 아빠는 윤지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취재진이 만났을 때 윤지의 옷에는 한 달째 빨지 않아 묵은 때가 앉았고 썩은 이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주 윤지는 공부방 친구들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놀리자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윤지는 보건소의 심리검사에서 ‘자살하고 싶다’고 썼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일상을 죽음보다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유아기의 빈곤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학습능력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은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와 같은 아이들의 1차 안전망은 지역아동센터이다. 전국에 3000여 개가 있지만 정부 지원금이 월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운영비를 대기도 빠듯하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윤지와 같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은 연간 1억여원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지난해까지 외부 후원금으로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게 30만~4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올해는 지원을 포기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봉년 교수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병세가 악화돼 학습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행을 저질러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라도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9. 1.16일자>

◆특별취재팀=안혜리·김은하·강기현·김진경 기자, 임운주 인턴기자(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 사진=김경빈 기자

## 온정 이어지는데 ... 서연아, 어딴니?

“돕고 싶다” “우리 집 보내달라” 전화 쇠도  
정부도 학교도 무관심한 사이 연락 끊겨  
지역아동센터 “쌀보다 따뜻한 손길 필요”

“어린 시절에 혼자 어렵게 살아서 (서연이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이 울었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고 싶어요.”

익명을 요구한 50대 여자가 14일 오전 전화를 걸어 왔다. 그녀는 “10만원이라도 통장으로 부칠 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이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연이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뭔가 용기를 주고 싶다.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고 싶다”며 “꼭 연결해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겼다.

서연(17·가명)이는 ‘거리의 소녀’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엄마가 집을 나간 뒤 할머니 집으로 갔다. 지난해 말 금융위기를 맞아 외삼촌이 실직하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외삼촌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했다.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거의 다 떨어져, 1000원짜리 주먹밥을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잘 데가 없어 밤새 신림동 뒷골목을 전전하다 새벽이면 찜질방에서 잠을 청한다.

보도가 나간 뒤 서연이를 돕겠다는 온정이 이어졌다. 같은 또래의 딸이 있다는 40대 주부는 “딸처럼 보살필 테니 우리 집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할아버지는 “애 상황이 급한 것 같은데 10만원이라도 보낼 테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한 유명 피아니스트도 중앙데일리(중앙일보 발행 영어신문)를 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며 e-메일을 보냈다.

서연이를 급히 찾았다.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이를 보면 연락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14일부터 수차례 전화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소식이 없었다. 친구도 “찾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15일 금천청소년쉼터에 잠깐 나타났다가 외출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연이를 만난 건 한 달 전이다. 늦은 밤 24시간 패스트푸드점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을 불러 주고 “눈이 예쁘다”고 칭찬하면 얼굴이 환해지던 아이였다.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먼저 드세요”라며 수저를 먼저 드는 법이 없었다. 배려 받은 적이 없지만 배려하는 법은 알고 있었다.

우리의 무심한 시선은 비켜 갔지만 서연이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서울 신림동과 천호동, 동대문의 뒷골목, 늦은 밤 공원과 지하철 역사의 벤치에 수많은 ‘서연이’가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년 사이에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두 번 버림받았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무서운 아이들’이라며 피했던 그들이다.

서연이에게 정작 필요한 건 쌀이 아니다. 동사무소와 기업 등이 불우아동을 위해 내놓은 쌀은 찢어치기 곤란할 정도다. 취재진이 만난 거리의 아이들은 20여 명. 이들을 찾아온 선생님은 없었다. 아이들은 “꿀통에다 시끄러운 계가 없어서 선생님이 좋아하실걸요”라고 말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팀장은 “아이에게 필요한 건 밥을 챙겨 주고 보살펴 줄 따스한 손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9. 1.17일자>

## 2008년 경제위기에서의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sup>1)</sup>

모상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 조사개요

본 연구는 2008년 이래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 그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본 연구는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생활의 불안정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제·신체·정신적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가늠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조사항목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 체계는 2008년 하반기 몰아닥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신체·정신적 고통과 실태 및 욕구를 조사를 위해 전체 4개의 대분류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일부는 기존에 사용했던 문항들을 현 설문지 체계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사용하였다. 대분류체계는 I, 경제위기에서 아동의 인식 및 심리적 적응영역 II, 기초생활 영역에서의 변화양상 III, 사회지원체계 실태 IV, 교육·문화·사회서비스실태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하부 조사지표로 구체되어 있다. 대분류 체계 II는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기초적 변화 양상을 조사했으며 의료·보건, 정서적 건강, 경제위기에서 수반된 심리적·생활상·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실직유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묻는 지표

1) 본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긴급정책과제인 「경제위기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연구진: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로 하위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체계를 묻는 대분류 지표 Ⅲ은 하부영역으로 가족·학교·지역사회·비행행동의 양태를 조사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체계 Ⅳ는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정보·문화, 여가활동, 복지서비스와 같은 하부 척도로 세분화되었으며 경제위기에 의해 야기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빈곤 아동·청소년 경제위기 조사지표와 세부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1-1> 2009년 경제위기 설문지 문항 구성 체계

대분류	조사영역	세부내용	참 고
I		1.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인식 경로 2.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 3. 경제위기에 대한 부모의 태도 4. 부모와의 관계 5. 경제위기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6.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 수입변화 7. 가정의 경제상태 변화	
II 기초생활	의료·보건	8. 질병 종류 및 치료 유·무 8-1. 치료받지 않은 이유	‘06 <sup>2)</sup> 3번 선택지 보완
	정서적 건강	11. 자아존중감 <sup>3)</sup> 12. 사회심리적 적응 <sup>4)</sup>	‘06 4번, 5번 수정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9. 4단계 척도 1)~6) 심리적 변화(6) 9. 7)~16) 생활상의 변화(11) 9. 17)~20) 가족관계의 변화(4) 10. 그렇다/그렇지 않다 1) 생계형 아르바이트 시작 2) 경제문제로 가족해체 3) 부모 실직 4) 생계형 성매매 시도	‘99 <sup>5)</sup> 문항 : 7)~9), 11), 14)~17), 19) * 타 영역 중 유사문항도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특히 경제위기 이후 ‘변화’에 초점두어 질문
		16. 생활비나 용돈마련 방법	‘06 61번 문항축소
III 사회지원 체계	가족	13.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sup>6)</sup>	‘06 12번 문항축소
	학교	14.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06 16번 문항축소
	지역사회	15.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 <sup>7)</sup>	‘06 17번 문항축소

	비행	17.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결석, 가출, 성인사이트 접속 경험(한 학기)	'08복지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수정(한 달 이내)
IV 교육·문화·사회서비스	교육	18~19. 학교생활 부적응과 결석 이유(한 학기) 20. 대학진학 가능성 여부와 이유	'06 23~24번(지난 1년간) 선택지 수정
	정보·문화	21.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현황 22. 휴대폰 보유 여부	'06 28~29번 수정
	여가활동	23.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24. 여가활동 장애 요인	'06 31~32번 수정
	복지서비스	25.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6. 복지서비스 이용 시 느낌	서울아동패널10번 '06 36번 문항축소

## 2. 조사방법

본 조사의 대상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서민층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학령기를 보면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사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표집선정이 전국 단위에 기초한 확률표본 추출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지만, 본 조사에서는 시안의 시급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 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록 조사지역이 전국단위가 아

- 2) 김경준 외(2006). 청소년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3)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 4) Achenbach, T. M.(1991). 아동용 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 List : CBCL) 중 우울에 관한 문항을 사용함.
- 5) 황창순·이혜연·김희진(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6) Straus(1990).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CT)와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2002). 아동학대척도를 사용함.
- 7) Sampson, Raudenbush, & Earls(1997). 지역사회응집력 척도

년 서울시 특정 지역에 한정시켰고, 본 조사목적에 반영해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의표집이 이루어졌지만, 표본의 선정은 부분적으로 층화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1) 표집지역 및 표본추출

빈곤 아동·청소년의 표집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재산세 납부 순위, 2) 재정자립도 비율, 3)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하위 7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평가기준에 따른 하위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I-2-1> 표집 기준 및 지역

평가기준	지역
2008년 재산세 하위 5개 자치구	강북구(최저)→금천구→중랑구→도봉구→은평구
2008년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노원구(최저)→중랑구→관악구→은평구→강서구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지역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강남구, 영등포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재산세 납부,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 기초한 각 기준의 중복 여부에 가중치를 두어 선정된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아래와 같다.

<표 I-2-2>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

평가기준	지역
재산세와 재정자립도 모두 하위이며 교복사업 대상 지역	은평구, 중랑구
재산세 하위면서 교복사업대상	강북구
재정자립도 하위면서 교복사업대상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재산세, 재정자립도 하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교복사업대상	양천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위의 결과를 기초로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표집지역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자치구는 <표 I-2-3>에 기술되어 있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및 재정자립도 기준으로는 중산층 거주 지역에 속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의 규모가 다른 자치구보다 크다는 사실에 기초, 해당 임대주택 단지지역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선정·추가하였다.

<표 I-2-3>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지역

지역	표집 근거
①번 은평구, 중랑구 ②번 강북구 ③번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총 6개 자치구 내에서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 학교 표집
④번 강남구	재산세, 재정자립도로 저소득지역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는 곳 중 임대주택 규모가 큰 지역임
전체 표본은 강남/북, 강서/동 등 서울전역에서 골고루 표집하여 총 7개 자치구로 구획함	

위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표집지역의 선정은 조사자의 연구목적에 따른 유의표집에 근거하고 있으며 표본선택을 위해 사용된 추출방법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택, 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표본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내에서도 주로 빈곤층가정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을 대상표본으로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자치구별로 교급 수준에 따라 (초등학생 5학년 남·여 학생, 중학생 2학년 남·여 학생) 초등학교·중학교 각각 한 곳씩을 선정하였다. 강북구의 경우 사전표집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중학교가 자체 일정상의 이유로 인해 표집을 위한 실사를 거부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관악구에서 추가로 한 곳의 중학교를 선정, 대체표집이 실시되었다. 표본 추출을 위해 선정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중학교 각 7곳, 총 14교에 달하며(<표 I-2-4> 참조), 조사는 2009년 2월 초에 시작하여 약 1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중학생의 총 수는 814명이었다.

<표 I-2-4>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학교명단

지역	학교	소재지
은평구	A초등학교	서울 은평구
	B중학교	서울 은평구
중랑구	C초등학교	서울 중랑구
	D중학교	서울 중랑구
강북구	E초등학교	서울 성북구
노원구	F초등학교	서울 노원구
	G중학교	서울 노원구
관악구	H초등학교	서울 관악구
	I중학교	서울 관악구
	J중학교	서울 관악구
강서구	K초등학교	서울 강서구
	L중학교	서울 강서구
강남구	M초등학교	서울 강남구
	N여자중학교	서울 강남구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은 395명으로 전체의 48.5%였으며, 여학생은 419명으로 51.5%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았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 405명으로 전체의 49.8%, 중학생은 409명인 50.2%로 교급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14명 모두 결측 없이 답변에 응답했지만, 부모의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5%인 41명, 부친의 학력수준은 36.4%에 달하는 296명, 모친의 학력수준에 대한 무응답 비율도 부친에 대한 무응답 비율과 비슷한 37.6%로 306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의 가정이 빈곤층에 속하는 “어려운편이다”가 202명(24.8%), “보통이다”가 590명(72.5%)에 달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인 “잘사는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한 22명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유의추출에 의한 저소득층 중심

의 표집방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양·한부모와의 거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결혼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681명(88.1%)이 양부모에 해당하는 “결혼·재혼”에 답하였고 92명(11.9%)은 한부모와의 거주를 의미하는 “이혼·별거·사별”에 응답하였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59명(11.4%), 고등학교 졸업이 159명(30.7%), 대학교 졸업이상이 300명(57.9%)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이 고졸 항목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친의 학력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4명(12.6%), 고등학교 졸업이 216명(42.5%), 대학교 졸업이상이 228명(44.9%)으로 고등학교 졸업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 II. 조사결과

### 1.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실태

2008년 하반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정서적 건강정도 그리고 경제위기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실태 조사를 위해 설정된 독립 변수 중 특별히 경제수준 요인이 집단 간 분석을 위한 중요 변수로 고려 될 수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수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 집단<sup>8)</sup>을 비(非)빈곤 집단으로부터 정확히 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경제수준 요인은 이를 탐색 할 수 있는 유의한(relevant)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으며 여타 다른 변인에 의한 분석 결과의 기술은 함께 첨부된 표를 참조하여 파악할 수 있다.

8) 표집대상 지역이 서민층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그 중에서도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가정은 ‘빈곤’으로 ‘보통이다’는 비(非)빈곤 집단인 ‘중간층’로 분류했다. 중산층 정도를 의미하는 ‘잘사는 편이다’는 전체 표본의 3%미만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했다.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경험과 치료유무

성별특성에 따른 질병을 경험 유무 비율로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 아동·청소년 가운데 여학생의 54.2%, 남학생의 45%정도가 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의 질병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두 성별 집단 간 질병 경험 유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1-1> 질병을 앓은 경험-성별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50.2	49.8	100(814)
성별	남자	54.9	45.1	100(395)
	여자	45.8	54.2	100(419)

$\chi^2 = 6.755^{**}$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아동·청소년의 비율분포는 성별특성과 부모님의 결혼 상태 양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학생(19.6%)이 남학생(12.4%)보다 위장·내과 질환을 앓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결혼 상태가 정상인 아동·청소년들(14.8%)이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범주<sup>9)</sup>에 속하는 아동·청소년(27.2%)들 보다 유의수준에서 질병경험과 관련하여 현격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II-1-2>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경험-성별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sup>10)</sup>
전 체		83.9	16.1	100(814)
1) 성별	남자	87.6	12.4	100(395)
	여자	80.4	19.6	100(419)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85.2	14.8	100(681)
	기타	72.8	27.2	100(92)

1)  $\chi^2 = 7.731^{**}$  2)  $\chi^2 = 9.050^{**}$

9) 부모의 결혼 상태와 관련해서 “결혼”은 결혼 및 재혼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이혼, 별거, 사별, 혹은 모른다는 응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0) 각 세부변인별 결측치의 차이로 전체 표본수와 세부변인별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의 경험 유무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별 특성과 경제수준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0.2%만이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2.3%가 ‘경험 있음’에 답변해 성별 간 해당 질병 경험 유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경제수준 별 조사결과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경험 있음’에 대한 응답비율(3.0%)이 경제수준이 보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 배 이상 높았다.

<표 II-1-3> 피부질환(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성별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8.8	1.2	100(814)
1) 성별	남자	97.7	2.3	100(395)
	여자	99.8	0.2	100(419)
2) 경제수준	어렵다	97.0	3.0	100(202)
	보통	99.3	0.7	100(590)

1)  $\chi^2 = 6.972^{**}$  2)  $\chi^2 = 6.343^*$

폐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부모님의 결혼 패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3.3%)집단은 결혼집단(0.4%)에 비해 해당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8배 이상 높았다.

<표 II-1-4> 결핵 및 폐질환-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9.2	0.8	100(77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9.6	0.4	100(681)
	기타	96.7	3.3	100(92)

$\chi^2 = 8.371^{**}$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은 중학생(15.2%)에 비해 초등학생(22.2%)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충치나 잇몸질환 같은 치과질환의 발병비율은 초등학생(3.5%)에 비해 중학생(7.3%)에게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보였다.

<표 II-1-5>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교급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81.3	18.7	100(814)
교급	초등학교	77.8	22.2	100(405)
	중학교	84.8	15.2	100(409)

$$\chi^2 = 6.685^*$$

<표 II-1-6> 충치 및 잇몸질환-교급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4.6	5.4	100(814)
교급	초등학교	96.5	3.5	100(405)
	중학교	92.7	7.3	100(409)

$$\chi^2 = 5.986^*$$

백혈병·암 혹은 만성질환의 발병비율은 가정의 경제 수준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의 7.4%가 해당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 수준이 보통인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험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3.6%에 그쳐 2배 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1-7> 백혈병, 암 혹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5.5	4.5	100(792)
경제수준	어렵다	92.6	7.4	100(202)
	보통	96.4	3.6	100(590)

$$\chi^2 = 5.185^*$$

다음은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항목 중 ‘증상이 가벼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48.9%, 경제수준이 보통인 아동·청소년은 59.6%였다. 세부 항목 중 특히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보통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았다. ‘고쳐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중간층(1.8%)에 비해 빈곤(6.4%)층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II-1-8>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경제 수준 간 비교

(단위 : %)

구 분	증세가 가벼워 워서	치료 비가 없어 서	거리가 멀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 워서	귀찮 아서	고쳐 지지 않아서	약을 못 먹어서	집에서 쉬면 나을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집에 약이 있어서	전체	
전 체	56.5	6.2	1.2	0.6	1.2	28.0	3.1	0.6	1.2	0.6	0.6	100 (161)	
경제수준	어렵다	48.9	17.0	2.1	0	2.1	19.1	6.4	0	2.1	2.1	0	100 (47)
	보통	59.6	1.8	0.9	0.9	0.9	31.6	1.8	0.9	0.9	0	0.9	100 (114)

$$\chi^2 = 22.219^*$$

## 2)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본 지표에서는 최근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을 심리적 변화·생활상의 변화·가족관계의 변화와 아동·청소년의 생활비나 용돈 마련 방법 등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1) 심리적 변화

먼저 경제 위기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 중 2008년 이후 ‘더 외로움을 느낀다’에 응답한(‘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전체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17.3%로 나타났다. 세부 변인 별 분석에서는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의 결혼 상태 별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I-1-9>참조).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중학생 보다는 초등학생, 경제 수준이 중간층보다는 빈곤층이, 부모님의 결혼 상태가 정상인 가정보다는 기타에 속한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표 II-1-9> 나는 더 외롭다고 느낀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0	41.7	13.7	3.6	100(810)
1) 성별	남자	48.9	36.4	10.4	4.3	100(393)
	여자	33.6	46.8	16.8	2.9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45.2	35.5	14.6	4.7	100(403)
	중학교	36.9	47.9	12.8	2.5	100(407)
3) 경제수준	어렵다	35.6	39.6	16.3	8.4	100(202)
	보통	42.5	42.7	13.0	1.9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42.5	41.8	13.1	2.5	100(677)
	기타	35.9	39.1	17.4	7.6	100(92)

1)  $\chi^2 = 23.893^{***}$  2)  $\chi^2 = 14.299^{**}$  3)  $\chi^2 = 21.371^{***}$  4)  $\chi^2 = 8.816^*$

심리적 변화를 평정하는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의 41%가 ‘대체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53%로 전체 응답비율에 비해 12%정도 높았으며, 경제 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36.3%) 집단에 비해서는 무려 17%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II-1-10>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성별·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3.6	35.4	31.6	9.4	100(810)
1) 성별	남자	30.3	31	29.8	8.9	100(393)
	여자	17.3	39.6	33.3	9.8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26.6	37.2	26.8	9.4	100(403)
	중학교	20.6	33.7	36.4	9.3	100(407)
3) 경제수준	어렵다	19.3	27.7	35.1	17.8	100(202)
	보통	25.6	38.1	30.0	6.3	100(586)

1)  $\chi^2 = 19.678^{***}$  2)  $\chi^2 = 9.589^*$  3)  $\chi^2 = 29.735^{***}$

자신감의 정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2%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반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7.4%가 동일한 답변 경향을 보여주었다. 경제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 집단은 16.6%만이 동일 응답 경향을 나타냈으며 전자가 11%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1-11>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37.1	43.8	15.5	3.7	100(809)
1) 성별	남자	42.1	40.1	15.3	2.6	100(392)
	여자	32.4	47.2	15.6	4.8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43.9	36.7	15.6	3.7	100(403)
	중학교	30.3	50.7	15.3	3.7	100(406)
3) 경제수준	어렵다	32.8	39.8	20.9	6.5	100(201)
	보통	38.6	44.9	14.0	2.6	100(586)

1)  $\chi^2 = 10.290^*$  2)  $\chi^2 = 19.220^{***}$  3)  $\chi^2 = 13.161^{**}$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 응답자의 11.2%만이 이를 긍정하는 느낌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아동·청소년 집단의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8.4%인 반면 빈곤층 아동의 동일 문항 응답 비율은 18.8%로 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경향이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II-1-12>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3.3	35.6	7.7	3.5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59.7	29.4	7.0	4.0	100(402)
	중학교	46.9	41.8	8.4	2.9	100(407)
2) 경제수준	어렵다	44.1	37.1	10.9	7.9	100(202)
	보통	56.2	35.4	6.5	1.9	100(585)

1)  $\chi^2 = 16.081^{**}$  2)  $\chi^2 = 24.095^{***}$

아동·청소년의 가출관련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14.6%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부모님의 결혼 상태 양상에 따른 응답 경향(<표 II-1-13> 참조) 이외에 가정 경제 수준 변인에 따른 빈곤층과 중간층 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빈곤층은 21.8%, 중간층에서는 9.9%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출 항목에 대해 긍정적 답변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비율로 가출성향을 나타냈다.

<표 II-1-13> 나는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교급·경제수준·부모님 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6.8	28.6	10.6	4.0	100(810)
1) 교급	초등학교	63.5	22.3	9.7	4.5	100(403)
	중학교	50.1	34.9	11.5	3.4	100(407)
2) 경제수준	어렵다	49.0	29.2	14.9	6.9	100(202)
	보통	58.7	29.4	9.2	2.7	100(586)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57.5	29.5	10.0	3.0	100(677)
	기타	53.3	23.9	13.0	9.8	100(92)

1)  $\chi^2 = 18.758^{***}$  2)  $\chi^2 = 13.950^{**}$  3)  $\chi^2 = 11.854^{**}$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의 16.5%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 대한 변인 간 집단 차이는 성별·교급·부모님의 결혼 양상에 따라 유의하게 확인 되었으며, 경제 수준에 따른 빈곤(25.9%) vs. 중간(13.2%)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빈곤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집단(26.1%) 아동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14>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2.0	31.5	11.9	4.6	100(809)
1) 성별	남자	57.7	27.0	11.2	4.1	100(392)
	여자	46.8	35.7	12.5	5.0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60.0	24.1	9.2	6.7	100(403)
	중학교	44.1	38.9	14.5	2.5	100(406)
3) 경제수준	어렵다	43.3	30.8	16.4	9.5	100(201)
	보통	54.3	32.6	10.6	2.6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53.3	32.0	11.2	3.6	100(676)
	기타	44.6	29.3	16.3	9.8	100(92)

1)  $\chi^2 = 10.113^*$  2)  $\chi^2 = 36.862^{***}$  3)  $\chi^2 = 24.336^{***}$  4)  $\chi^2 = 10.416^*$

## (2) 생활상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지난 한 학기동안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가 항목별로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유의하게 검증된 항목 분석을 통해 변인 수준 간 효과의 정도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교급 이외에 경제변인(빈곤vs.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구입관련 문항에서 구입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아동·청소년은 전체 6.5%인데 반해 빈곤층에 속하는 응답자는 대략 2배에 달하는 11%가 부정적 방향으로 동일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4.9%만이 이에 상응된 답변을 하였다.

<표 II-1-15>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한다-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3.0	30.5	5.1	1.4	100(789)
경제수준	어렵다	56.9	32.2	6.9	4.0	100(202)
	보통	65.1	30.0	4.4	0.5	100(587)

$\chi^2 = 16.500^{**}$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경제 위기 이후 방과 후 학원 혹은 과외 교습을 중단하게 된 비율은 22.3%로 전체 아동·청소년 응답자 14%에 비해 8%이상 높았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11.6%)에 대해선 11%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교급 수준 간 차이는 표에 기술 되어 있다.

<표 II-1-16> 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즐기거나 중단하게 되었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3.1	22.9	10.5	3.5	100(808)
1) 교급	초등학교	72.3	17.8	7.3	2.8	100(400)
	중학교	54.2	27.9	13.7	4.2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2.5	26.2	13.9	7.4	100(202)
	보통	66.1	22.3	9.4	2.2	100(584)

1)  $\chi^2 = 28.847^{***}$  2)  $\chi^2 = 19.666^{***}$

문화·수련활동 같은 여가 활동이 줄었거나 중단정도에 묻는 항목에서 전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12.5%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의 동일 응답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답변 비율은 9.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급 수준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1-17> 나의 문화체험, 수련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9.9	27.6	9.9	2.6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66.7	25.6	5.7	2.0	100(403)
	중학교	53.2	29.7	14.0	3.2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5.9	22.3	15.8	5.9	100(202)
	보통	61.2	29.6	7.8	1.4	100(587)

1)  $\chi^2 = 22.621^{***}$  2)  $\chi^2 = 25.786^{***}$

‘용돈이 줄었다’ 항목에 대한 응답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전체 대상 아동·청소년의 17.5%가 ‘그렇다’라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 나타난 유의한 차이 이외에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용돈 감소에 대한 평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27.2%)은 중간층 집단(14.5%)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자신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18> 나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0.0	22.5	11.5	6.0	100(806)
1) 교급	초등학교	66.6	19.6	8.0	5.8	100(398)
	중학교	53.7	25.2	15.0	6.1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0.5	22.3	15.3	11.9	100(202)
	보통	62.5	23.0	10.5	4.0	100(582)

1)  $\chi^2 = 16.830^{**}$  2)  $\chi^2 = 22.451^{***}$

경제 위기 이후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가사의 증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변인 이외에 경제변인의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대상 응답자의 22.2%가 대체로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는 32.9%, 중간층 소속 응답자는 18.3%만이 해당 항목에 긍정하는 답변 성향을 보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가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I-1-19> 나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4	36.5	17.1	5.1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47.9	33.7	13.5	5.0	100(401)
	중학교	35.0	39.2	20.6	5.1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37.3	29.9	26.4	6.5	100(201)
	보통	42.5	39.2	14.0	4.3	100(586)

1)  $\chi^2 = 15.773^{**}$  2)  $\chi^2 = 19.426^{***}$

경제위기에서 생필품에 대한 지출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8%정도가 대체로 지출비용을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교급과 경제수준 변인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31.3%가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1.5%만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전자에 비해 10%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1-20> 우리집은 옷이나 신발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4	34.8	19.5	4.3	100(910)
1) 교급	초등학교	48.3	32.8	14.9	4.0	100(402)
	중학교	34.6	36.8	24.0	4.7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34.3	34.3	22.9	8.5	100(201)
	보통	43.4	35.1	18.9	2.6	100(587)

1)  $\chi^2 = 18.887^{***}$  2)  $\chi^2 = 17.082^{**}$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 할 때 병원치료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1%가 부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5.5%,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가 동일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응답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경제 변인이외에 교급·부모의 결혼상태 같은 변인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가 확인되었다.

<표 II-1-21> 우리집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82.1	14.8	2.7	0.4	100(810)
1) 교급	초등학교	87.1	10.7	2.2	0	100(402)
	중학교	77.2	18.9	3.2	0.7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73.1	21.4	5.0	0.5	100(201)
	보통	84.7	12.9	2.0	0.3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84.1	13.4	2.4	0.1	100(678)
	기타	71.7	19.6	6.5	2.2	100(92)

1)  $\chi^2 = 15.159^{**}$  2)  $\chi^2 = 14.213^{**}$  3)  $\chi^2 = 17.100^{**}$

지난해 경제위기가 시작한 이후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서 성별·교급·부모의 결혼상태 변인 이외에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4.6%가 이사 후 생활이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은 9.9%가 중간층은 2.7%만이 상응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이사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불편감이 중간층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표 II-1-22> 우리집은 집을 줄여 이사하여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4.6	20.9	3.2	1.4	100(810)
1) 성별	남자	72.4	20.2	5.1	2.3	100(392)
	여자	76.6	21.5	1.4	0.5	100(418)
2) 교급	초등학교	77.4	19.2	1.7	1.7	100(402)
	중학교	71.8	22.5	4.7	1.0	100(408)
3) 경제수준	어렵다	65.3	24.8	6.9	3.0	100(202)
	보통	77.3	20.0	2.0	0.7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7.4	18.6	3.0	1.0	100(678)
	기타	62.0	28.3	5.4	4.3	100(92)

1)  $\chi^2 = 14.035^{**}$  2)  $\chi^2 = 8.180^*$  3)  $\chi^2 = 21.567^{***}$  4)  $\chi^2 = 14.123^{**}$

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2%가 ‘대체로 그렇다’는 방향으로 답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급·부모님의 결혼 상태를 묻는 변인 이외에 경제변인 간 집단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빈곤층 응답자의 동일 응답비율은 20.9%로 나타났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7%만이 외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외부 의존도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23> 우리집은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3.9	15.8	8.0	2.2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74.8	13.7	7.7	3.7	100(401)
	중학교	73.0	17.9	8.3	0.7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8.7	20.4	16.9	4.0	100(201)
	보통	78.2	14.8	5.3	1.7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9.1	13.9	5.8	1.3	100(678)
	기타	44.0	27.5	22.0	6.6	100(91)

1)  $\chi^2 = 10.617^*$  2)  $\chi^2 = 38.600^{***}$  3)  $\chi^2 = 61.736^{***}$

### (3)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위기에 따른 세 번째 변화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아래 일련의 표 속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가정의 수입의 감소로 인해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악화 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 중 9.1%에 해당되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동일 응답비율은 22%로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비율인 4.8%와 비교 할 경우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경제 위기 이후 가정 소득의 감소로 인한 부모 갈등의 부정적 인식 정도가 빈곤층 아동·청소년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 및 부모결혼 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표 II-1-24> 우리집의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8.5	22.4	8.0	1.1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74.1	17.7	7.5	0.7	100(401)
	중학교	63.0	27.0	8.6	1.5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4.5	23.5	18.0	4.0	100(200)
	보통	72.6	22.7	4.6	0.2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0.2	22.0	6.8	1.0	100(677)
	기타	59.8	21.7	16.3	2.2	100(92)

1)  $\chi^2 = 12.616^{**}$  2)  $\chi^2 = 59.807^{***}$  3)  $\chi^2 = 11.402^*$

본인과 부모사이의 관계가 악화 되었다고 응답 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7.3%였으며, 경제 빈곤층 집단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14.4%)이 중간층 아동·청소년(5.2%)에 비해 10%이상 현저히 높았다. 교급 간 유의한 집단차이도 확인되었다.

<표 II-1-25> 나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9.5	23.2	5.9	1.4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79.7	15.1	4.5	0.7	100(403)
	중학교	59.6	31.1	7.4	2.0	100(408)
2) 경제수준	어렵다	56.4	29.2	11.4	3.0	100(202)
	보통	73.3	21.6	4.3	0.9	100(587)

1)  $\chi^2 = 39.201^{***}$  2)  $\chi^2 = 27.207^{***}$

경제위기가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4.7%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은 11.4%가 이에 일치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반해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아동·청소년집단은 단지 2.3%만이 이에 상응된 응답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빈곤층에서 가정폭력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1-26> 우리집은 가족 간에 폭력을 쓰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8.0	17.3	3.9	0.8	100(788)
1) 경제수준	어렵다	65.3	23.3	9.4	2.0	100(202)
	보통	82.4	15.2	2.0	0.3	100(586)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9.9	16.1	3.5	0.4	100(678)
	기타	67.4	22.8	6.5	3.3	100(92)

1)  $\chi^2 = 37.268^{***}$  2)  $\chi^2 = 13.919^{**}$

가정 내 경제적 상황 악화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2.8%가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교급 및 부모 결혼 상태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도 검증되었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무려 68.8%가 해당 문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반해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34.1% 만이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보여주었다. 가정경제의 위기에 대한 부모의 근심정도가 중간층 집단에 비해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1-27>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 하신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9.5	27.7	31.8	11.0	100(808)
1) 교급	초등학교	32.2	30.7	27.4	9.7	100(401)
	중학교	26.8	24.8	36.1	12.3	100(407)
2) 경제수준	어렵다	16.8	14.4	39.6	29.2	100(202)
	보통	33.9	32.0	29.5	4.6	100(584)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30.0	28.6	32.1	9.3	100(676)
	기타	23.9	21.7	33.7	20.7	100(92)

1)  $\chi^2 = 10.484^*$  2)  $\chi^2 = 119.594^{***}$  3)  $\chi^2 = 12.193^{**}$

### 3)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궁핍으로 생활비·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본 문항에 대한 교급·부모님 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변인에 따른 집단 간 응답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6%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표 II-1-28>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3.5	96.5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1.7	98.3	100(402)
	중학교	5.1	94.9	100(409)
2) 경제수준	어렵다	6.0	94.0	100(201)
	보통	2.7	97.3	100(588)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2.5	97.5	100(678)
	기타	9.8	90.2	100(92)

1)  $\chi^2 = 7.003^{**}$  2)  $\chi^2 = 4.620^*$  3)  $\chi^2 = 13.142^{***}$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구성원이 헤어지게 되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8.9%가 헤어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3.6%에 그쳤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그렇다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은 4.8%로 나타났다.

<표 II-1-29>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  
- 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4.9	95.1	100(790)
1) 경제수준	어렵다	8.9	91.1	100(202)
	보통	3.6	96.4	100(588)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2.1	97.9	100(679)
	기타	21.7	78.3	100(92)

1)  $\chi^2 = 9.134^{**}$  2)  $\chi^2 = 74.421^{***}$

경제위기가 시작 된 후 부모님의 실직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수준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3%, 빈곤층 집단은 11.4%, 중간층 집단은 3.4%의 비율을 나타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계층의 부모 실직률은 전체 응답자에 비해 2배이상, 중간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1-30>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5.3	94.7	100(812)
1) 교급	초등학교	3.2	96.8	100(403)
	중학교	7.3	92.7	100(409)
2) 경제수준	어렵다	11.4	88.6	100(202)
	보통	3.4	96.6	100(588)

1)  $\chi^2 = 6.834^{**}$  2)  $\chi^2 = 18.625^{***}$

#### 4)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정서적 건강상의 변화

앞장에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기초생활 및 사회 지원체계의 변화양상을 빈도 분포비율에 기초한 카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독립표본 비교검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제수준이 정서·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기초생활 변화양상에 대한 효과검증까지 함께 실시하였다. 경제변인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정서·정신적 건강정도가 여타 다른 실태 조사영역에서와 같이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받을지를 알아봄으로 경제위기가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규명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표 II-1-31>에 기술되어 있으며 교급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청소년 N=785)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 경제 수준 중간층(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 N=585) vs. 빈곤층(어렵다고 응답한 대상 N=200) - 집단 간 심리·생활·가족관계의 변화 대한 인식정도와 정서·정신적 건강지표에 해당되는 자아존중감 및 사회 심리적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해당 부가적으로 제시된 하위지표 모두에서 경제적 빈곤층 아동·청소년과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겪게 되는 여러 지표상의 변화 정도가 중간층에 비해 빈곤층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존재 가치 수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현재 부적응 상태에 대한 지표인 사회·심리적응척도에서 두 아동·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빈곤 아동·청소년(M=28.09)은 중간층 집단(M=29.73)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으며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자신의 사회·심리적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심리적응 척도에서 빈곤층(M=29.90) 집단은 중간층 집단(M=26.08)에 비해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빈곤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용성, 능력에 대한 확신, 어려움 극복

능력 등과 같은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현격히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반대로 자신의 사회적 적응능력에 대한 비관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빈곤층 집단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1-31>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 차이(초등학교+중학교)

구 분	경제수준		T
	어렵다	보통이다	
① 심리적 변화	M	12.3	4.712***
	SD	4.336	
② 생활상 변화	M	16.77	5.695***
	SD	5.046	
③ 가족관계 변화	M	7.59	8.773***
	SD	2.497	
①+②+③	M	36.36	7.094***
	SD	9.956	
자아존중감	M	28.09	-3.496**
	SD	5.890	
사회심리적 적응	M	29.90	5.344***
	SD	9.607	

주1 : M=평균값(Mean), SD=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 2.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경제위기가 시작 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래 표에 기술되어있다. 먼저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8.5%가 6개월에 한번 이상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체벌비율(26.7%)은 중간층

집단의 비율(15.2%)에 비해 11% 이상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체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 됐다. 부모로부터 특정 도구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전체의 4.4%였으며, 경제요인에 의한 집단 수준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못했다. 이외에 교급수준·부모의 결혼 상태·부친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아동·청소년의 20.7%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와 같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6.7%로 중간층 반응비율 17.6%보다 9%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II-2-1>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1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전 체	81.4	13.1	5.4	100(814)	
	1) 교급	초	77.3	15.6	7.2	100(405)
		중	85.6	10.8	3.7	100(409)
	2) 경제 수준	어렵다	73.3	17.3	9.4	100(202)
		보통	84.7	11.0	4.2	100(590)
	1) $\chi^2 = 9.874^{**}$ 2) $\chi^2 = 14.404^{**}$					
도구로 위협 당함	전 체	95.6	2.7	1.7	100(814)	
	3) 교급	초	97.5	1.2	1.2	100(405)
		중	93.6	4.2	2.2	100(409)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6.5	2.2	1.3	100(681)
		기타	91.3	6.5	2.2	100(92)
	5)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94.5	1.8	3.7	100(218)
		대졸이상	95.3	4.0	0.7	100(300)
3) $\chi^2 = 7.854^*$ 4) $\chi^2 = 6.205^*$ 5) $\chi^2 = 7.823^*$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모욕감과 수치를 느낌	전 체	79.3	13.9	6.8	100(792)	
	6) 경제 수준	어렵다	73.3	15.8	10.9	100(202)
		보통	81.4	13.2	5.4	100(590)
	6) $\chi^2 = 8.583^*$					
모멸감 을 자극하 는 언행	전 체	80.8	11.9	7.3	100(791)	
	7) 경제 수준	어렵다	74.3	12.9	12.9	100(202)
		보통	83.0	11.5	5.4	100(589)
	7) $\chi^2 = 13.003^{**}$					
홀로 방치	전 체	58.1	20.6	21.3	100(792)	
	8) 경제 수준	어렵다	55.4	15.8	28.7	100(202)
		보통	59.0	22.2	18.8	100(590)
	8) $\chi^2 = 10.194^{**}$					

부모님으로부터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는 모멸감을 자극하는 언행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19.2%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5.8%에 달해 중간층 응답자(1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님의 외출 같은 밤늦은 귀가시간 까지 홀로 방치 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응답자는 41.9%,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44.5%, 중간층은 41%로 나타났다. 빈곤집단과 중간집단의 아동·청소년 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 되었다.

가정의 청결과 부모의 관심을 나타내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가’ 같은 부모의 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8%였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님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차이도 검증되었다.

<표 II-2-2>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전 체		93.7	4.7	1.6	100(814)
1) 성별	남자	91.9	5.3	2.8	100(395)
	여자	95.5	4.1	0.5	100(419)
2) 교급	초등학교	95.8	3.5	0.7	100(405)
	중학교	91.7	5.9	2.4	100(409)
3) 경제수준	어렵다	90.1	6.4	3.5	100(202)
	보통	95.3	3.9	0.8	100(590)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4.6	4.3	1.2	100(681)
	기타	85.9	8.7	5.4	100(92)

1)  $\chi^2 = 7.745^*$  2)  $\chi^2 = 6.603^*$  3)  $\chi^2 = 9.364^{**}$  4)  $\chi^2 = 12.736^{**}$

<표 II-2-3> 부모님이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전 체		94.2	4.0	1.8	100(792)
1) 경제수준	어렵다	89.6	7.9	2.5	100(202)
	보통	95.8	2.7	1.5	100(590)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5.7	2.8	1.5	100(681)
	기타	87.0	10.9	2.2	100(92)

1)  $\chi^2 = 11.479^{**}$  2)  $\chi^2 = 15.023^{**}$

가족 내 갈등을 보여주는 항목 중 학교 결석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에 관한 질문과 부부간 폭력 행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모의 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만 유의하게 확인 될 수 있었다. 최근 6개월 간 한, 두 번 이상 부모님 사이의 모욕적인 언행 행사를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의 20.6%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고,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31.7%, 중간층 집단은 16.8%가 동일 경험이 있음을 보고 했다.

<표 II-2-4>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2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부모의 무관심 (결석에 대한)	전 체	97.3	1.0	1.7	100(773)	
	1)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7.9	0.9	1.2	100(681)
		기타	92.4	2.2	5.4	100(92)
	1) $\chi^2 = 10.312^{**}$					
부부 간 폭력행사	전 체	93.9	5.2	0.9	100(772)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4.1	5.3	0.6	100(680)
		기타	92.4	4.3	3.3	100(92)
	2) $\chi^2 = 6.550^*$					
부부 간 모욕적 언행	전 체	79.4	15.4	5.2	100(790)	
	3) 경제 수준	어렵다	68.3	19.8	11.9	100(202)
		보통	83.2	13.9	2.9	100(588)
	4) 부친학력 수준	고졸이하	72.9	19.3	7.8	100(218)
		대졸이상	83.6	14.0	2.3	100(299)
3) $\chi^2 = 30.928^{***}$ 4) $\chi^2 = 12.018^{**}$						

## 2)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학교 선생님의 존경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급 간 명백한 차이 만 확인되었다.

<표 II-2-5>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 한다-교급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8	22.4	50.9	20.0	100(812)
교급	초등학교	3.2	9.7	53.8	33.3	100(403)
	중학교	10.3	35.0	47.9	6.8	100(409)

$\chi^2 = 145.109***$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가’에 대해 -교급·경제수준·부친학력수준·모친학력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I-2-6> 우리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교급 · 경제수준 · 부모학력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9.6	27.3	44.4	18.7	100(813)
1) 교급	초등학교	6.2	17.8	44.3	31.7	100(404)
	중학교	13.0	36.7	44.5	5.9	100(409)
2) 경제수준	어렵다	15.3	26.2	44.6	13.9	100(202)
	보통	7.5	28.2	44.8	19.5	100(589)
3)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10.6	36.7	41.3	11.5	100(218)
	대졸이상	9.7	24.7	47.7	18.0	100(300)
4) 모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11.4	33.6	43.6	11.4	100(280)
	대졸이상	9.6	24.6	45.2	20.6	100(228)

1)  $\chi^2 = 108.613***$  2)  $\chi^2 = 12.718**$  3)  $\chi^2 = 10.920*$  4)  $\chi^2 = 10721*$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성별·교급·경제수준·부친학력수준에 따라 응답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2-7>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친학력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9	18.6	53.6	19.9	100(813)
1) 성별	남자	11.2	18.8	50.3	19.8	100(394)
	여자	4.8	18.4	56.8	20.0	100(419)
2) 교급	초등학교	4.7	12.4	50.2	32.7	100(404)
	중학교	11.0	24.7	57.0	7.3	100(409)
3) 경제수준	어렵다	12.9	26.7	47.0	13.4	100(202)
	보통	6.1	16.0	55.9	22.1	100(589)
4)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9.6	24.8	53.7	11.9	100(218)
	대졸이상	7.3	17.3	53.3	22.0	100(300)

1)  $\chi^2 = 12.194^{**}$  2)  $\chi^2 = 94.047^{***}$  3)  $\chi^2 = 26.027^{***}$  4)  $\chi^2 = 11.433^*$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묻는 질문 중 교사로부터 차별 대우 경험 유무, 신체적 체벌 경험 정도, 모욕감과 수치심 경험 정도는 성별·교급·부친 및 모친 학력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 변인 수준 간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II-2-8>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경험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차별 대우 경험	전 체	43.7	40.7	11.6	4.1	100(813)	
	1) 교급	초	55.7	31.2	9.4	3.7	100(404)
		중	31.8	50.1	13.7	4.4	100(409)
	2)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39.0	47.2	12.4	1.4	100(218)
		대졸이상	40.0	41.0	12.0	7.0	100(300)
	1) $\chi^2 = 47.968^{***}$ 2) $\chi^2 = 9.796^*$						
신체적 체별	전 체	32.8	30.9	23.5	12.8	100(813)	
	3) 성별	남자	23.9	28.9	26.6	20.6	100(394)
		여자	41.3	32.7	20.5	5.5	100(419)
	4) 교급	초	43.8	30.2	15.8	10.1	100(404)
		중	22.0	31.5	31.1	15.4	100(409)
	5) 모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24.3	30.7	32.1	12.9	100(280)
		대졸이상	36.4	30.7	19.7	13.2	100(228)
3) $\chi^2 = 59.005^{***}$ 4) $\chi^2 = 53.949^{***}$ 5) $\chi^2 = 13.495^{**}$							
모욕 및 수치심 경험	전 체	55.2	29.5	9.2	6.0	100(813)	
	6) 성별	남자	52.5	27.7	11.7	8.1	100(394)
		여자	57.8	31.3	6.9	4.1	100(419)
	7) 교급	초	67.6	22.5	5.0	5.0	100(404)
		중	43.0	36.4	13.4	7.1	100(409)
	6) $\chi^2 = 12.433^{**}$ 7) $\chi^2 = 52.930^{***}$						

### 3)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 수준 집단 간 차이가 확인 되었다. 두 문항에 대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은 각각 70.2%, 72.2%였으며 반면에 중간층 집단의 동일 응답 비율은 각각 61.1%, 58.2%를 나타나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II-2-9>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한다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주민 협력	경제 수준	어렵다	22.4	47.8	26.9	3.0	100(201)
		보통	16.0	45.1	30.7	8.2	100(586)
2)지역의 안전성	경제 수준	어렵다	22.4	49.8	22.4	5.5	100(201)
		보통	16.0	42.2	31.6	10.2	100(588)

1)  $\chi^2 = 13.532^{**}$  2)  $\chi^2 = 10.312^*$

### 4) 용돈 마련 방법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 비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해서 조달 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2-10> 용돈수령·절도와 강탈·성매매나 원조교제

구 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전체	
1) 부모로부터 용돈수령	경제 수준	어렵다	13.4	32.3	54.2	100(201)
		보통	5.6	33.2	61.2	100(587)
2) 절도와 강탈	경제 수준	어렵다	92.5	4.5	3.0	100(199)
		보통	96.9	1.5	1.5	100(585)
3) 원조교제나 성매매	경제 수준	어렵다	96.0	0.5	3.5	100(200)
		보통	97.8	1.4	0.9	100(584)

1)  $\chi^2 = 13.244^{**}$  2)  $\chi^2 = 7.760^*$  3)  $\chi^2 = 7.834^*$

### 5) 비행행동 경험

흡연·절도·강탈경험 같은 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정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행동을 한, 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 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2-11> 흡연·절도 경험·강탈경험-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없음	1~2번	3~4번 이상	전체	
1) 흡연	경제 수준	어렵다	88.1	4.0	7.9	100(202)
		보통	92.7	4.6	2.7	100(589)
2) 절도 경험	경제 수준	어렵다	83.2	11.9	5.0	100(202)
		보통	91.3	7.6	1.0	100(589)
3) 강탈경험	경제 수준	어렵다	88.1	8.4	3.5	100(202)
		보통	95.4	3.9	0.7	100(589)

1)  $\chi^2 = 10.547^{**}$  2)  $\chi^2 = 15.723^{***}$  3)  $\chi^2 = 15.305^{***}$

### 3.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서비스

#### 1)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생활적응과 대학진학 가능 여부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2008년 2학기 이후의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도, 결석일수와 그 이유,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학교생활 적응도와 결석일수

먼저 학교생활 적응정도를 살펴 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10% 이상이 적응하지 못한다(‘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와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를 합친 비율)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1>). 세부 변인별로는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7.7%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12.8%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중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II-3-1> 학교생활 적응 정도-교급·경제수준·부모결혼상태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전체(명)
전 체		2.2	8.0	51.1	38.7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1.2	6.5	47.1	45.2	100(403)
	중학교	3.2	9.6	54.9	32.3	100(406)
2) 경제 수준	어렵다	3.5	13.4	53.5	29.7	100(202)
	보통	1.7	6.3	50.8	41.2	100(585)
3) 부모결혼 상태	결혼	1.6	6.5	51.2	40.7	100(676)
	기타	6.5	15.2	47.8	30.4	100(92)

1)  $\chi^2 = 17.091^{**}$     2)  $\chi^2 = 16.697^{**}$     3)  $\chi^2 = 19.230^{***}$

또한 경제수준이 빈곤집단인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9%인 반면,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경우 8.0%로 나타나, 빈곤층인 아동 및 청소년이 2배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부모님이 결혼 및 재혼상태인 아동과 청소년의 8.1%만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나, 부모님의 결혼상태가 ‘기타’범주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은 21.7%가 응답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결혼 상태와 관련해 학교적응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설문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의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결석일수를 조사하였는데, 1번 이상 결석하였다는 응답비율은 약 20%였으며, 7일 이상의 결석도 5.6%의 아동과 청소년이 응답하였다(<표 II-3-2>). 세부변인별로는 교급, 경제수준, 아버지 학력, 부모의 결혼 상태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의 최근 1번 이상의 결석일수가 24.2%인데, 반해 중학생은 15.7%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결석률이 더 높았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 경제수준의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률이 24.6%로 보통수준의 17.9%보다 더 높았다. 특히 7일 이상의 결석은 어려운 경제사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9%로서 보통수준의 4.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표 II-3-2>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수-교급·경제수준·부 학력·부모결혼상태 비교  
(단위 : %)

구 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명)
전 체		80.1	14.4	3.3	0.8	1.0	0.5	100(794)
1) 교급	초등학교	75.8	19.3	3.6	0.5	0.5	0.3	100(393)
	중학교	84.3	9.5	3.0	1.0	1.5	0.7	100(401)
2) 경제수준	어렵다	75.4	15.6	4.0	1.0	3.0	1.0	100(199)
	보통	82.1	13.8	2.8	0.7	0.3	0.3	100(574)
3) 부 학력	고졸이하	75.5	14.6	5.7	0.0	2.8	1.4	100(212)
	대졸이상	84.3	11.6	2.7	1.0	0.3	0.0	100(293)
4) 부모결혼상태	결혼	82.3	13.5	2.9	0.8	0.5	0.2	100(666)
	기타	69.2	14.3	7.7	1.1	4.4	3.3	100(91)

1)  $\chi^2 = 18.924^{**}$  2)  $\chi^2 = 13.451^*$  3)  $\chi^2 = 16.540^{**}$  4)  $\chi^2 = 35.783^{***}$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경우가 (75.5%), 그리고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69.2)%에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일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를 결석한 이유로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은 ‘몸이 아파서(70.5%)’ 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11.5%),’ ‘학비를 못 내서(4.3%),’ ‘선생님이 싫어서(4.3%)’ 순으로 나타났다(<표 II-3-3>)<sup>11)</sup>.

<표 II-3-3> 학교 결석 이유-성별 ·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학비를 못내서	가사를 돕기위해	부모님이 못가게 해서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선생님이 싫어서	가출해서	괴롭힘이 무서워서	전체 (명)	
전 체	4.3	2.2	2.9	70.5	11.5	4.3	2.9	1.4	100(139)	
성별	남자	7.1	2.9	4.3	60.0	12.9	8.6	2.9	1.4	100(70)
	여자	1.4	1.4	1.4	81.2	10.1	0	2.9	1.4	100(69)
교급	초등	2.5	2.5	2.5	79.0	8.6	3.7	1.2	0	100(81)
	중	6.9	1.7	3.4	58.6	15.5	5.2	5.2	3.4	100(58)
경제수준	어렵다	2.6	2.6	7.7	64.1	10.3	7.7	2.6	2.6	100(39)
	보통	5.3	2.1	1.1	72.6	11.6	3.2	3.2	1.1	100(95)

## (2) 대학진학 가능 여부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은 교급, 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II-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고,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모두 고졸 이하이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에 속할 때, 대학진학이 가능하지 않다는 아동과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응답자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응답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교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세부변인별 응답비율만 제시하였다.

<표 II-3-4> 대학 진학 가능 여부  
-교급·경제수준·부모학력·부모결혼 상태별 비교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명)
전 체		72.5	27.5	100(793)
1) 교 급	초등학교	69.0	31.0	100(397)
	중학교	76.0	24.0	100(396)
2) 경제수준	어렵다	65.8	34.2	100(193)
	보통	74.4	25.6	100(578)
3) 부 학력	고졸이하	70.0	30.0	100(213)
	대졸이상	84.9	15.1	100(292)
4) 모 학력	고졸이하	72.9	27.1	100(273)
	대졸이상	83.5	16.5	100(224)
5) 부모결혼상태	결혼	76.9	23.1	100(667)
	기타	56.3	43.7	100(87)

1)  $\chi^2 = 4.863^*$  2)  $\chi^2 = 5.326^*$  3)  $\chi^2 = 16.435^{***}$  4)  $\chi^2 = 7.953^{**}$  5)  $\chi^2 = 17.190^{***}$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교급 등의 세부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아서(80.3%)’, ‘경제적인 이유로(9.4%)’,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5.6%)’ 순으로 나타났다(<표 II-3-5>).

특히 가정경제수준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년은,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보다 ‘경제적인 이유로’대학을 진학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13.2%로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3-5>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성별·교급·경제수준별 비교<sup>12)</sup>

(단위 : %)

구 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대학이 안중요함	기타	전체(명)
전 체		80.3	9.4	0.5	5.6	4.3	100(213)
성별	남자	72.7	14.1	0	8.1	5.0	100(99)
	여자	86.8	5.3	0.9	3.5	3.6	100(114)
교급	초등학교	76.4	10.6	0.8	5.7	6.5	100(123)
	중학교	85.6	7.8	0	5.6	1.1	100(90)
경제 수준	어렵다	73.5	13.2	0	5.9	7.4	100(68)
	보통	83.7	7.8	0.7	5.0	2.8	100(141)

## 2)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여가활동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여가활동과 또 희망하는 여가활동, 또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장애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 (1) 현재 및 희망 여가활동

최근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표 II-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시청’, ‘인터넷 및 컴퓨터게임’, ‘집에서의 휴식’, ‘친구만나기’, ‘집안일 돕기’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다른 양상을 보여, ‘여행’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친구만나기’, ‘음악·영화감상’, ‘인터넷·컴퓨터게임’, ‘쇼핑하기’순으로 나타났다.

12) 응답자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응답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교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세부변인별 응답비율만 제시하였다.

<표 II-3-6> 현재 여가활동 (복수응답)

(단위: 빈도)

순위	현재 여가활동 (빈도)		희망여가활동 (빈도)	
1	TV시청	434	여행	325
2	인터넷·컴퓨터게임	389	친구만나기	227
3	집에서 휴식	317	음악·영화감상	208
4	친구만나기	256	인터넷·컴퓨터게임	202
5	집안일 돕기	145	쇼핑하기	183

(2)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간부족(51.6%)’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부담(27.1%),’ ‘적절한 장소·시설(12.8%)’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3-7>).

<표 II-3-7> 여가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교급·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비용부담	시간부족	함께할 사람이 없음	적절한 장소·시설이 없음	정보획득이 어려움	전체(명)
전 체		27.1	51.6	5.6	12.8	3.0	100(791)
1) 교급	초등학교	19.2	59.1	7.0	10.9	3.9	100(386)
	중학교	34.6	44.4	4.2	14.6	2.2	100(405)
3) 경제수준	어렵다	44.8	36.1	6.2	10.8	2.1	100(194)
	보통	21.7	56.3	5.2	13.5	3.3	100(577)

1)  $\chi^2 = 32.199^{***}$  2)  $\chi^2 = 41.805^{***}$

세부변인별로는,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시간부족(59.1%와 44.4%)’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각각 19.2%와 34.6%로 응답해 적지 않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또한 경제수준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부담(44.8%)’을 그리고 중간층인

경우는 ‘시간부족(56.3%)을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응답해,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역시 비용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참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상담서비스, 학습지도서비스,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서비스,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견학·문화체험 등의 당일 프로그램,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여부와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 (1) 서비스 참여도와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 II-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지도 서비스’의 참여경험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캠프 등 수련활동(44.9%)’, ‘견학·문화체험(36.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서비스(9.7%)’,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9.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8.8%)’,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8.2%)’의 참여비율은 모두 10%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3-8>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단위 : %)

구 분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명)	
상담서비스	1) 경제수준	전 체	9.7	90.3	100(783)
		어렵다	17.0	83.0	100(200)
		보통	7.2	92.8	100(583)
학습지도서비스	2) 교급	전 체	50.6	49.4	100(800)
		초등학교	62.5	37.5	100(397)
		중학교	39.0	61.0	100(403)

구 분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명)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청소, 빨래, 식사 등)	3) 성별	전 체	9.7	90.3	100(801)
		남자	12.8	87.2	100(390)
		여자	6.8	93.2	100(411)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서비스	4) 교급	전 체	8.2	91.8	100(802)
		초등학교	11.1	88.9	100(398)
		중학교	5.4	94.6	100(404)
	5) 경제 수준	전 체	8.3	91.7	100(782)
		어렵다	12.1	87.9	100(199)
		보통	7.0	93.0	100(583)
캠프 등 수련활동	6) 교급	전 체	44.9	55.1	100(801)
		초등학교	62.7	37.3	100(397)
		중학교	27.5	72.5	100(404)
견학, 문화체험	7) 교급	전 체	36.0	64.0	100(800)
		초등학교	52.4	47.6	100(397)
		중학교	19.9	80.1	100(403)
성격, 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전 체	8.8	91.3	100(800)	

1)  $\chi^2 = 16.305^{***}$     2)  $\chi^2 = 44.225^{***}$     3)  $\chi^2 = 8.218^{**}$     4)  $\chi^2 = 8.354^{**}$   
5)  $\chi^2 = 4.921^*$     6)  $\chi^2 = 100.522^{***}$     7)  $\chi^2 = 91.919^{***}$

일부 서비스는 세부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담서비스는 경제 수준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이, 학습지도서비스는 초등학생이, 그리고 자원 봉사자 방문서비스는 남자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또한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서비스는 초등학생과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년이, 캠프 등의 수련활동과 견학, 문화체험 등 당일활동에서는 초등학생이 더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표 II-3-9>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캠프 등의 수련활동과 견학,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이 비슷한 비율(각각 86.6%와 86%)로 가장 높은 만족도(‘만

족'과 '매우만족'을 합친 비율)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학습지도서비스(8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서비스(78.3%), 상담서비스(74.7%),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69.7%),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69%)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9>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만족도 -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명)	
상담서비스	전 체	8.0	17.3	50.7	24.0	100(75)	
학습지도서비스	전 체	5.9	13.9	64.7	15.5	100(388)	
	1) 교급	초등	5.1	10.6	65.3	19.1	100(236)
		중	7.2	19.1	63.8	9.9	100(152)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청소등)	전 체	10.5	19.7	50.0	19.7	100(76)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서비스	전 체	10.1	11.6	58.0	20.3	100(69)	
캠프 등 수련활동	전 체	2.9	10.7	49.0	37.5	100(347)	
견학, 문화체험	전 체	3.6	10.5	58.9	26.9	100(275)	
	2) 성별	남자	6.4	14.4	48.8	30.4	100(125)
		여자	1.3	7.3	67.3	24.0	100(150)
	3) 교급	초등	3.5	6.6	57.1	32.8	100(198)
		중	3.9	20.8	63.6	11.7	100(77)
성격, 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전 체	7.5	23.8	41.3	27.5	100(80)	
	4) 성별	남자	10.6	31.9	40.4	17.0	100(47)
		여자	3.0	12.1	42.4	42.4	100(33)

1)  $\chi^2 = 10.595^*$     2)  $\chi^2 = 13.055^{**}$     3)  $\chi^2 = 20.254^{***}$     4)  $\chi^2 = 9.263^*$

일부 서비스들은 세부변인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학습지도 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의 응답비율은 84.4%로 중학생(73.7%)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학 및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서는 여학생이 91.3%로 남학생(79.2%)보다, 그리고 초등학생(83.9%)이 중학생(75.3%)보다 더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여학생(84.8%)의 만족도가 남학생(5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 이에 대한 인식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I-3-10>에서와 같이, 본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 중 14.4%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변인 중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11.4%)보다는 초등학생(17.4%)이 그리고 가정 경제수준이 빈곤층인 경우(24.7%)가, 중간층인 경우(11.2%)보다 2배 이상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3-10>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급식, 상담, 후원 등) 이용 여부  
-교급·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4.4	85.6	100(807)
1) 교급	초등학교	17.4	82.6	100(402)
	중학교	11.4	88.6	100(405)
2) 경제수준	어렵다	24.7	75.3	100(198)
	보통	11.2	88.8	100(587)

1)  $\chi^2 = 6.009^*$     2)  $\chi^2 = 21.593^{***}$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I-3-11>과 같다. 먼저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4.4%의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라는 응답도 24.3%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으며,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에 대해서도 비슷

한 수준(24.4%)의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4분의 1 정도의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3-11> 사회복지서비스(급식, 상담, 후원등)에 대한 인식  
-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16.1	19.5	44.1	20.3	100(118)	
	전 체	31.9	43.7	21.8	2.5	100(119)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전 체	41.2	34.5	21.0	3.4	100(119)	
	1) 성별	남자	34.4	27.9	32.8	4.9	100(61)
		여자	48.3	41.4	8.6	1.7	100(58)
	2) 교급	초등	47.2	37.5	13.9	1.4	100(72)
		중	31.9	29.8	31.9	6.4	100(47)

1)  $\chi^2 = 12.127^{**}$       2)  $\chi^2 = 8.618^*$

## 지정 토론

1. 경제위기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정책
2.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3. 경기도 :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4. 빈곤아동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5.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건너서 성인의 삶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구나



## 경제위기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정책

구인회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정책은 몇 가지 상이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 우선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위험에 놓인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위기는 가족의 성인-가구주나 그 배우자-들의 실직이나 소득감소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아동,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지위 하락은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김광웅 교수님의 발표문 “1929년 대공황 위기의 고통”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복잡한 면이 있지만, 경제위기의 경험이 아동의 이후 삶에 강한 흔적을 남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2) 경제위기는 종종 적지 않은 가족을 빈곤한 상태로 빠뜨리고 빈곤은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아동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의료, 교육과 같은 중요한 발달상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특히 학업 발달과 학력 성취에 대해서는 빈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구인회 외, 2009).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정책은 우선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고 빈곤의 위험에 놓인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다음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 아동,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불안정이 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동,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는 것이다. 즉 경제위기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는 요인들에 개입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차단하는 정책이다. 부모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부부상담,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경제위기의 영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마지막으로 아동은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시설 등에서의 급식, 돌봄, 학습이나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가족 밖의 환경에서 아동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해체된 가족의 아동, 피학대 아동, 유기된 아동, 가출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다.

5) 이러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지 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몇 가지 중심적 방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우선,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빈곤의 위험에 놓인 가족을 중심적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직이나 사업실패를 경험하는 가족 중 저소득층에 경제적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는 이들 저소득층의 재산과 건강, 가족적 유대를 크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며, 일단 이러한 손상이 일어나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후에는 이들 가족의 자립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들 가족의 아동, 청소년 또한 부모의 좌절, 부모와의 유대 단절을 경험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정책에서는 특히 기초보장제도 등 현행 제도

의 혜택 밖에 놓여있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일자리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실직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해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을 크게 늘리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6)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는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인프라는 많이 확충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예산의 지원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위기아동에 대해 적절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위기에 빠진 아동들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위기가정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고 가족생활을 정상화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윤영득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보건복지가족부

## 목 차

- I.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체계도
- II. 정책여건 및 현실 진단
- III.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비전 및 목표
- IV.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주요내용

## I.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체계도

# 아동청소년정책의 체계도

보건복지가족부

	관	목	보
대 상	모든 아동청소년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특 징	보편적 서비스	구체적·개별적 서비스	환경적·규제적 서비스
관련 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성보호법
내 용	잠재역량 개발	균등기회 보장	유해환경 규제
주요 인프라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활동프로그램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쉼터,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

## II. 정책여건 및 현실 진단

### ■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저소득아동 및 나홀로 아동 양산 우려

- 소득격차가 교육·문화 격차로 이어져 가난의 대물림 가능성 우려
  - 소득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 : 4.8배('03) → 6.1배('06)
- 이혼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의 보호기능 약화, 학업중단 및 가출청소년 증가
  - 인구 1천천명당 이혼건수(조이혼율) : 0.6명('80) → 2.6명('07)
  - 가출청소년 : 13,294('05) → 18,636('07), 학업중단 : 46,898명('06)

## II. 정책여건 및 현실 진단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미흡

- 방과후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동 52만명 중 34%인 18만명만 보호, 66% 미보호

<빈곤아동청소년 방과후 지원 현황>

(‘08.12월말 현재, 단위: 명)

아동인구	빈곤아동수 (장대빈곤율 8.4%)*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					미수혜 아동청소년
		소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아동센터 (2,810개)	방과후 아카데미 (180개)	방과후 보육 (1,000개)	방과후 교실 (초등보육)	
중학생이하 6,184,392	519,488 (100)	177,200 (34.1)	80,500 (15.5)	7,700 (1.5)	39,000 (7.5)	50,000 (9.6)	342,288 (65.9)

\* “한국의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2008.5월)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지원을 수요자 대비 29.3% 수준

(‘08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위기 아동, 청소년 수			교과부 돌봄 위기학생(B) (Wee project)	우리부 정책대상 (C=(A-B))	CYS-Net 지원수
만9-12 (8.4%)*	만13-18 (17%)**	소계(A)			
220,012	713,591	933,603	387,355	273,124	80,000
23.6%	76.4%	100%	41.5%	49.9%	8.6%

\* 상대빈곤율, \*\* 경기도 상담지원센터 위기청소년실태조사(‘06.12)

## II. 정책여건 및 현실 진단

### ■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미흡

-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참여율 낮은 수준

· 동아리 활동 참여율은 42.9%로 중국(60.4%), 일본(64.7%), 미국(65.3%)의 2/5수준

- 학업부담은 만성적인 운동부족·수면부족 초래

· 체육활동 참가율 : 50.2%(‘94) → 38%(‘06), 청소년(15~19세) 중 25%만 규칙적인 운동

-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미흡

· 청소년시설 등 기본인프라 부족(시설당 청소년수 : 한국 13,519명, 일본 4,892명, 영국 3,252명, 독일 1,72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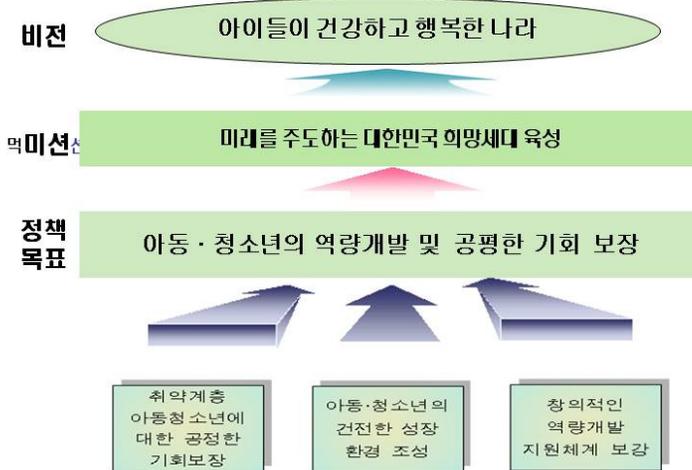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197천명)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인구(10,494천명)의 1.9% 불과

## II. 정책여건 및 현실 진단

### ■ 아동·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 시급

-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확산 추세
  - 유해업소 : 682,157개소('04) → 760,386개소('07),
  - 유해매체물 고시 : 21,763건('05) → 29,702건('07)
- 아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실종 등 증가
  - 안전사고 발생 : 2,342건('05) → 5,431건('07)
  - 실종아동 발생 : 7,064건('06) → 8,602건('07)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비율 증가
  - 성폭력 신고 : 642명('03) → 1,081명('07), 성매매 : 68.2%('02) → 90.9%('06)

## III. 아동·청소년정책 비전 및 목표



#### IV.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 주요내용 -

##### ■ 아동 청소년의 사회역량 강화

- 아동 청소년 참여 및 활동기회 확대
  - 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지원 확대
    - ' 08년 396개소(444백만원) → ' 09년 421개소(500백만원)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내실화
    - 청소년문화존, 동아리활동지원, 활동공모사업 확대
    - 청소년활동인증제 확대[ ' 08년 23천명 → ' 09년 35천명 참여]

#### IV.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 주요내용 -

##### ● 아동 청소년 활동을 위한 인프라 보강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10. 7월), 국립 영덕김제 청소년수련관 건립[ ' 09년 착공, ' 12년 완공],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 09년 69개소 368억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강화
-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인력 전문성 강화

##### ●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 국가간 청소년 교류 확대 : 26개국[ ' 08] → 30개국[ ' 09] → 42개국[ ' 13]
-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화
  - 조사·연수(280명), 국제회의 행사 참여(100명), 해외테마 체험(330명)
  - 해외자원봉사(612명) 등

#### IV.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주요내용

##### ■ 위기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 빈곤·요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복지·보건·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확대 ( ' 08년 32개 지역 → ' 09년 75개 지역 )
    - 수혜아동 및 가정 22천명( ' 08) → 52천명( ' 09) 확대 추진
  -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추진
    - ' 08.12월 현재 3만 4천명 통장개설, 총 301여억 원 적립 (아동 161, 정부 140)
  -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강화로 가정의 보호기능 보완
    - 지역아동센터 지원 (2,788개소 81천명), 방과후 아카데미(180개소 8천명), 방과 후 보육(966개소 23천명)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 IV.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주요내용

##### ●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및 내실화

-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업복귀, 취업 등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드림존과 자립지원 인프라를 연계하여 종합 자립지원체계 구축
  - 수혜자 수를 3,080명 ( ' 08) → 4,000명 ( ' 09)로 확대
-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긴급구조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 CYS-net ] ” 사업확대
  - 기관수( ' 08년 81개소 → ' 09년 96개소 ), 지원청소년수( ' 08년 8만명 → ' 09년 9만명)

#### IV.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 주요내용

##### ■ 아동 청소년 보호안전 체계 강화

##### ● 아동 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및 권리강화

-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강화
  - 경찰청 퇴직 인력 등을 활용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전개( ' 09년 1010명, 32억원)
  - 아동실종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 등과 무연고 아동 신상 DB 공유 ( ' 09. 7)
- 아동안전 사고 예방사업
  - 아동안전사고 예방관련 아동안전 지표 마련
  - 가정내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 아동학대 친권자의 피해아동 접근제한 (1년이내) 제고 [아동복지법 국회 계류 중]
-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구축
  - 아동학대 모니터링 한시적 운영 ( 06.10~09.3 ), 음브즈퍼즌 31명

#### IV.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 주요내용

##### ● 아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 40개단체, 315백만원 )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추진 ( 밤 10시 → 12시까지 )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 Youth Patrol ) 활동 확대
  - YP동아리 지원 : 08년 211개 → 09년 230개

#####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도입 및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5년 →10년)
-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성매수 대상청소년 발생현황 : 729명( ' 06년 ) → 785명( ' 07년 ) → 361명 ( ' 08.6)
- 청소년 문화센터 확대( ' 08년 29개소 → ' 09년 35개소 )

##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이철섭과장(경기도청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계획서

#### I 추진 배경

-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 증가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
- ⇒ 무한책임 사원에서 “무기한, 무제한 지원” 필요

#### II 추진 방향

- 현재의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 응급지원
  - 가정해체로 이탈된 아동·장애인·노인·장기환자 보호체계 마련
-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량권을 부여한 증액계상예산 편성

#### III 현행 지원제도

- 기초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보장
    - 207천명, 5,170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응급지원
    - 대상 : 6,000가구(최저생계비 150%이하)
    - 예산 : 79억원(국비80%, 도비10%, 시군비 10%)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비용 등
- ⇒ 기존 2개 보호 제도가 있으나 법제도, 지원범위, 예산상의 한계로 위기극복 지원수단으로는 미흡

## IV 무한 돌봄사업

### 1. 위기가정 돌봄사업

#### □ 원 칙

- 신속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先 지원 後 심사”
  -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긴급지원의 필요성 인정, 우선 지원 실시, 後 소득, 재산 등 조사
  -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는 종교단체등과 연계지원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가정은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돌봄사업 “총액계상예산” 편성

#### □ 대 상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 위 기 상 황 >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의 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

## □ 내 용

구 분	현행, 긴급 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0% 이하/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li> <li>금융자산 120만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li> <li>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li> </ul>
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비: 1,026천원/4인, 월</li> <li>주거비: 309천원/3-4인, 월</li> <li>사회복지시설 입소: 387천원/1인, 월</li> <li>연료비: 66천원/가구 ⇒ 지원기간 : 4개월 ⇒ 지원수준 : 기초수급자</li> <li>의료비: 3,000천원/인, 회(2회 限)</li> <li>해산비, 장제비, 전기료: 500천원/회(1회 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상황 해소시까지 지원</li> <li>지원범위 외 종목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결정</li> <li>종교단체 등의 민간복지자원 연계 지원</li> </ul>
지원 기간	최대 4개월	위기상황 해소시까지

## □ 지원 체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본인, 가족)</li> <li>신고(생활레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동 주민센터 ⇒ 제도 안내</li> <li>사·군 ⇒ 현지 확인, 상담 및 지원</li> </ul>
---	--



## 2. 시설입소 무한돌봄

### □ 보호대상

- 현행 법·제도 입소기준으로는 입소를 못하나 이혼, 학대, 유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사람.

### □ 보호기간

- 현행제도 : 최대 4개월
- 무한돌봄 : 위기 해소시 까지 시설 입소비용 지원(1인/387천원)

### □ 보호방법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입소 결정
- 사회복지 시설별 서비스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비용제공



※ 아동·심의제외

## V 소 요 예 산

- 사업비 : '08년도 20억원, '09년도 315억원

## 알기쉬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 〈 무한돌봄 Mission 〉

1. 생계비 없어 단 한명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돈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3. 돈없어 병원에 못가거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해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해체가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 '무한돌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도의 의지'를 담기 위해 사업명칭을 '무한돌봄'으로 정했으며 경제사정이 호전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무한돌봄사업'은 왜 하게 되었나요?

-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이 증가하고 있어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수혜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행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제도' 만으로는 실제로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위기가정'이란 어떤 경우를 말 하나요?

- 위기가정이란 아래와 같이 “위기상황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말합니다.

### — < 위기상황 >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5.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때

## ❏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어야 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622천원 이하 수준입니다.

< 소득기준 >

(단위:천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 저 생 계 비	491	836	1,081	1,327	1,572	1,817
최저생계비150%	736	1,254	1,622	1,990	2,358	2,726

- 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갖추어도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 사회복지사, 이웃주민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됩니다.
-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일 내에 지원을 합니다.

## ❏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등 9개 항목이나 모두를 한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항목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9개 항목 이외에도 위기극복에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 합니다.

- 다만, 공공재정으로 지원이 적절치 않은 부분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 지원항목 및 지원액 〉

1) 생 계 비(월) : 제한없음 (단위: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218	370	479	588	696	805

- 2) 의 료 비 : 제한 없음
- 3) 교 육 비 : 중고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미납분 전체
- 4) 주 거 비 : 493천원/3~4인, 월
- 5) 사회복지시설 이용 : 406천원/1인, 월
- 6) 연 료 비 : 월 68천원/가구, 동절기
- 7) 해 산 비 : 1회 500천원
- 8) 장 제 비 : 1회 500천원
- 9) 전 기 요 금 : 1회 500천원

### 누구나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사유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한돌봄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 노숙인은 기존제도로 보호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선지원 후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

-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인 만큼 신속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고후 실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기초조사, 3일 이내에는 지원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말 그대로 무한정 지원해 주나요?**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위기가 해소 될 때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道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기업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기관·단체를 연결하여 함께 돕는 방안도 병행해서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돕습니다.
- ‘무한돌봄’지원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 정부의 공적 부조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생활안정을 돕게 됩니다.

### **‘정부 지원제도’와 중복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 기존의 법과 제도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웠던 틈새 계층을 돕기 위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준, 지원종류, 지원방법 등 명칭이 유사한 부분은 있으나 중복 되지는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정부제도를 제1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면, ‘무한돌봄’제도는 제2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결과 무한돌봄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속한 지원'이라 해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재산기준 등 적합여부를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부정수급자도 있을 수 있어 정밀 심사를 하고 있으며,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위원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생활형편의 변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 조치하고 있으며, 고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도 병행 할 계획입니다.
-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수혜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무한돌봄사업'에 민간자원도 필요할 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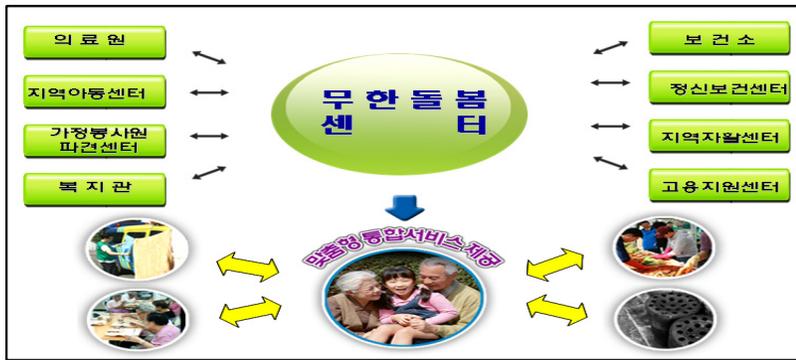
- 위기상황이 다양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종교단체, 기업, 후원자 등의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거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한돌봄센터'는 무엇인가요?

- 경기도와 각 시·군에 설치한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사업전담추진 기구로서 사업의 **Control Tower**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통합서비스 지원의 구심체 역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론, 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관리 등으로 복지전달체계를 Up-grade 시키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 ①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 ② 단절적 지원 → 통합적 지원
- ③ 공공자원 → 공공 + 민간자원
- ④ 복지 →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



⇒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거미줄처럼 연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 '무한돌봄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08년도에 20억원, '09년도에 315억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 무한돌봄사업 100일 성과



### 1 추진 배경

현행 정부의 법 제도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존재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노숙인, 부랑인 증가

### “ 무 한 돌 봄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한책임 차원에서

“무기한, 무제한 지원”

## 〈사회지표 변화〉

1

경기도 중소기업 부도율

[단위: 개소]



2

경기도 노숙인 현황



3

경기도 아동 일시 보호소 입소 인원



## 2 추진 방향

- 위기극복을 위한 "무기한 무제한" 지원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선지원 후 심사" 실시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기업, 종교단체, 후원인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 3 추진 과정

경제난 극복 긴급 민생 안정 대책회의(도지사 지시) : '08. 7

학계전문가, 사회복지사, 일선 현장 인권 수렴 : 18회 460명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08. 10

### 무한돌봄사업 시행 : '08. 11. 1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 상황 상설 점검반 운영 : 3개팀 6명

민간역량 결집을 위한 도민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 37명

무한돌봄센터 개소 : 사업추진 'Control Tower' : 도·시·군

### <홍보>

TV

KBS, MBC, OBS, KTV,  
T-브로드 케이블 TV



라디오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YTN FM 등

신문

조선, 동아, 한국, 국민, 경인, 경기, 중부일보 등



중앙일보(2009.2)



조선일보(2009.2)

경기넷배너



인터넷

포털 "다음" 배너 게재

## 〈홍보〉

### 인쇄물

중요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포스터(1만매), 리플릿(20만매) 배부

홍보리플릿



포스터

### 현수막

도, 시·군, 읍·면·동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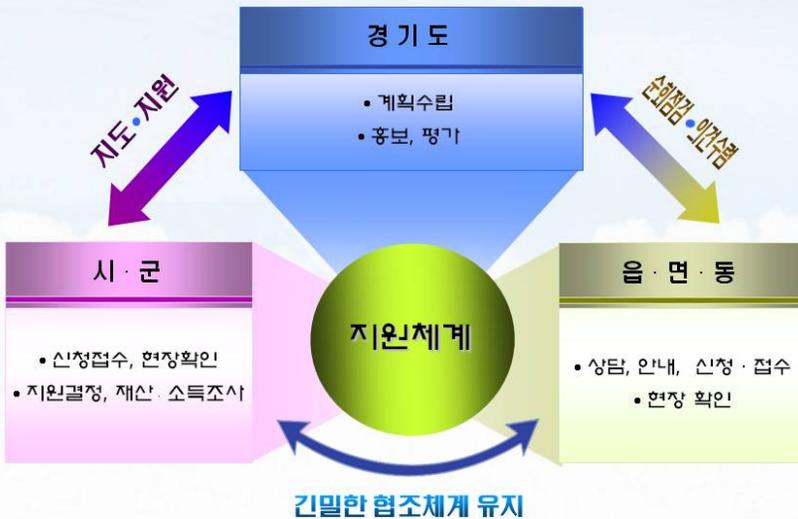
### 소식지

도(14개), 시·군(316개) 사회복지단체 발행 10만부

### 교육

통·리·반장,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 16,713명

## 4 지원 체계



## 5 지원 방침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가족 기준 월/1,989천원)

재산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이하

금융자산 : 300만원 이하



### 지원 원칙

“先 지원 後 심사” 방법으로 신속지원의 실효성 확보

지원항목에 제한 받지 않도록 현장 재량권 부여

신고 후 8시간 내 조사, 3일 내 지원여부 결정

## 5 지원 방침

### 위기 상황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가 사망, 기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때

한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5 지원 방침

###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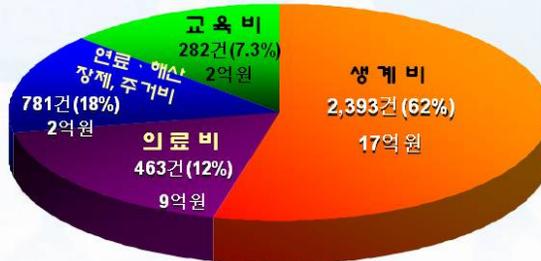
생계비	월/1인가구 218천원, 4인가구 588천원	  	
주거비	월/3~4인가구 493천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월/3~4인가구 406천원		
의료비	제한없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월/1가구 68천원		
교육비	수업료, 학교 운영비		
해산비·장제비	1회 500천원	전기요금	1회 500천원

※ 지원내용 외 중목도 위기극복 필요시 시장, 군수 결정으로 지원 가능

## 6 100일 추진성과

문의 : 23,131건, 지원결정 3,859건 ⇒ 지원금액 30억원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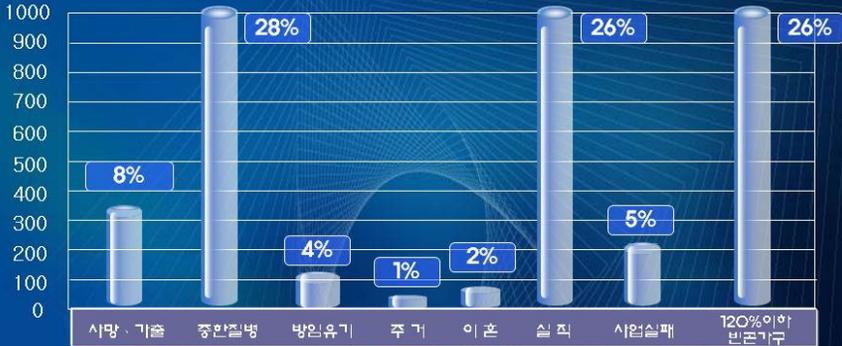


평균 지원금액

생계비 56만원, 의료비 158만원, 교육비 67만원, 주거비 39만원

## 위기 사유

(단위:건)



신속한 지원 : 3일 이내 96% 지원결정



## 6 100일 추진성과

### 민간자원 지원

경기도 공동모금회 : 30억원

대한양돈협회 : 돼지고기 1톤 ( 2천만원 상당 )

농협경기지역본부 : 쌀 6톤 ( 1천 5백만원 상당 )

종교시설 등 민간단체 : 157건 ( 83백만원 )

고용 및 취업조치 : 55명

## 7 상황 변동에 따른 탄력조치

### 선정기준 완화

- 일반재산
  - 대도시 9,500만원 → 13,500만원
  - 중소도시 7,750만원 → 8,500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463천원/1인 → 218천원/1인
  - 지원기간 : 8월 → 무기한
  - ※ 18세이상 49세이하 근로능력 가구 제외
- 의료비 300만원 → 무제한

### 위기상황 추가

- 최저생계비 120%미만 위기우려 빈곤가구

## 8 평가

도 민 : 일회성이 아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좋은 사업

학 계 : 위기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 계기 마련

언 론 : 경제 위기를 예견한 “경기도”의 적절한 정책  
중앙정부에서 농민 부문에 대한 “순발력” 높은 대응

담당공무원 : 업무량 증가로 힘드나 “복지사각지대 보호”에 많은 도움

## 9 발전 방향

'무한돌봄센터' 설치를 계기로 복지전달체계 Up-grade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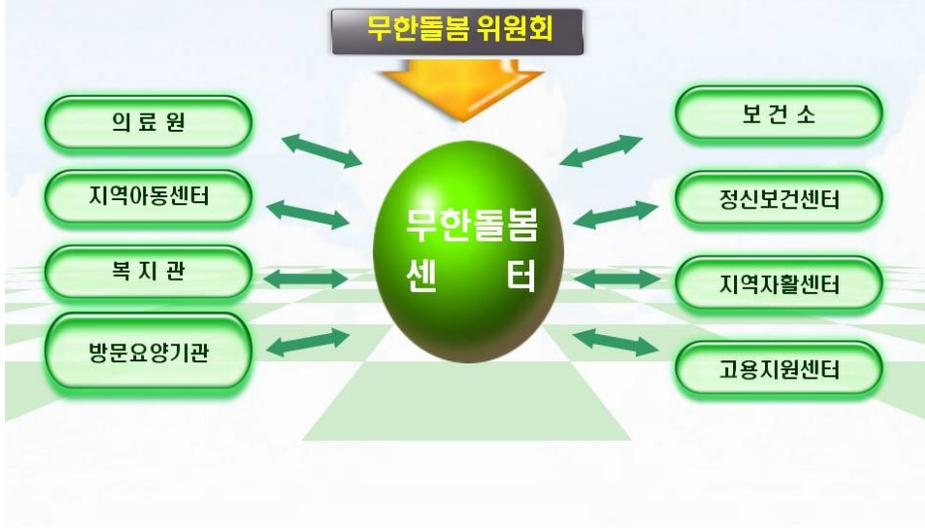
단절적 지원 ⇒ 통합적 지원

복지 ⇒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보육

민간자원 참여 확대로 공공자원 한계극복

촉촉한 발걸음 구축, 찾아내서 도와주는 능동적 지원

## 9 발전 방향





## 10 무한돌봄 Mission

1. 생계비 없어 단 한 명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돈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돈 없어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해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해체가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긴급 복지 지원 ⇒ 제 1 사회 안전망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 제 2 사회 안전망

## 희망의 징검다리

### 생활실태

- ❖ 수원시 권선구 2인 가구
  - ▶ 가구주 강○○(33세, 여)는 2008년 11월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고 있는 미혼모 가정임.
  - ▶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어 실직자 대상으로 국비지원 경기미용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배워 취직하려고 함.
- ❖ 재산은 보증금 1,500천원에 월세를 살고 있음.

### 위기상황

- ❖ 생계가 곤란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자녀양육으로 인해 근로를 못하고 있음.
- ❖ 대상자는 현재 실직상태로서 경기미용학원에서 국비지원 미용기술을 수강하고 있으며, 다른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신청·지원

- ❖ 저소득 자녀 보육료 신청 상담 중 생계의 어려움을 확인한 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안내하여 신청하였음.
  -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생계 및 난방비 지원
- ❖ 학원은 6개월 과정으로 수료한 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기간 동안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결정.

### 돌봄계획

-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지원기간 후 모자가정 신청 안내.
- ❖ 학원 수료 후에도 미 취업시 공공근로 또는 취업 알선할 계획임.

## 어둠속에서 찾은 빛

### 생활실태

-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거주 2인 가구
  - ▶ 가구주 남궁○○(46세,여)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임.
  - ▶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차상위(장애, 의료)지원을 받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 업소에 보조인력으로 근무 하였으나
  - ▶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직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곤란으로 형제들의 도움을 받지만 미취업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 상태임.
  - ▶ 자(김○○.17세)는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장애아 특별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음.
- ❖ 소득은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15만원이 전부이며, 재산은 임대보증금 2,200만원이 있음.

### 위기상황

- ❖ 08. 8월에 실직한 뒤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임.
- ❖ 실직과 장애아동 부양에 따른 생활 곤란 상황.

### 신청·지원

- ❖ 라디오 방송(무한돌봄 안내)을 듣고 지원 신청함.
  - ▶ 무한돌봄에서 생계 및 난방비 지원

### 돌봄계획

- ❖ 가구주의 일정 소득이 필요한 상태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 등으로 상담 안내.

### 생활실태

-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거주 4인가구
  - ▶ 가구주 배○○(43세,여)은 남편과 이혼한 뒤 세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저소득 가구임.
  - ▶ 미싱사로 근로를 하였으나 고용주와 갈등으로 실직하여 가족전체가 생활 곤란 상태이며 현재 구직 중에 있음.
  - ▶ 큰딸(이○○,21세)은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며 2009년 졸업 예정으로 근로능력 없음.
  - ▶ 둘째딸(이○○,17세)은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 준비 중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나 사고당사자가 보험 적용받지 못해 정부 무보험차량 지원사업비로 지원받아 치료 받음. 현재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의료비가 없어 받지 못하고 있음.
  - ▶ 자(이○○,14세)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아동으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임.
- ❖ 소득은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10만원이 전부이며, 재산은 임대보증금 1,146만원이 있음.

### 위기상황

- ❖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던 중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구직 중에 있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음.
- ❖ 세명의 자녀 중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아이가 없으며 그중 둘째딸은 오토바이사고로 인해 5주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 중임. 사고당사자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정부의 무보험차량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받아 치료받고 있음.

### 신청·지원

- ❖ 아파트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무한돌봄 안내문을 보고 지원 신청하였으며, 무한돌봄 사업에서 생계 및 난방비 지원

### 돌봄계획

- ❖ 가구주가 재취업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고용지원센터로 상담 안내 및 향후 의 구인구직 안내 작은딸의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비 발생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 생활실태

-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거주 4인 가구
  - ▶ 가구주 조○○(45세, 여)는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가족의 생계를 돌볼 수 없으며, 본인 역시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아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임.
  - ▶ 세명의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재학하고 있어 교육비 지출이 많으며 생활비 역시 부담이 많은 가정환경으로 생활이 어려움
  - ▶ 세대주 이○○(44.남)의 수감으로 소득이 전혀 없게 되어 고모의 도움으로 월세 30만원(보증금1000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음.
- ❖ 10년 이상된 자가용과 부채로 인해 양도된 승합차가 있음.

### 위기상황

- ❖ 세대주의 수감과 부인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난방유의 상승으로 연료도 구입할 수 없는 실정

### 신청·지원

-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 방문. 무한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생계 및 난방비 지원받음.
- ❖ 지역주민(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들의 도움으로 생필품등 지원

### 돌봄계획

- ❖ 가구주의 출소(2월중 출소예정)후 취업할 때 까지 무한돌봄 생계비 지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추진
- ❖ 높은 월세의 부담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신청.
- ❖ 장항1동 장학회에 자녀들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

### 생활실태

- ❖ 부천시 중1동 거주 3인 가구
  - ▶ 가구주 유○○(45세, 여)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일을 하지 못해 큰딸의 소득 100만원으로 생활하였으나 월세지출과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운 상태임.
  - ▶ 월세와 관리비가 3개월째 연체되었으며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 월세지출이 적은 집으로 이사를 원하고 있음.
  - ▶ 작은딸의 1/4분기, 2/4분기 교육비가 미납되어있으나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함.
- ❖ 재산은 보증금 5,000천원이 있지만 미납월세로 인해 얼마 돌려받지 못한다고 함.

### 위기상황

- ❖ 저소득으로 각종 공과금, 학비가 미납되어 납입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
- ❖ 월 50만원에 달하는 월세로 인해 연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신청·지원

- ❖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
  - ▶ 무한돌봄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 돌봄계획

- ❖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선정하여 만성적인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이나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을 안내

### 생활실태

- ❖ 안산시 단원구 ○○동 거주, 3인 가구
  - ▶ 이혼한 모자세대로 세대주(41세), 자녀 2명 학생
- ❖ 세대주 현재 실직상태로 09. 2.16일부터 공장에 일용근로 나갈 예정
- ❖ 현재 지인의 집에서 무료임대중
- ❖ 02년식 카니발 차량있으나 아직 지인과 연락이 안되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

### 위기상황

- ❖ 세대주는 대형마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첫째 자녀(고등학생)의 08년 3~4분기 학비 및 운영비를 미납한 상태

### 신청·지원

- ❖ 이혼한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로 자녀 학비 체납되어 상급학년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체납된 학비 08. 3~4분기 지원 결정

### 돌봄계획

- ❖ 교육비 지원후 세대주의 재취업여부 확인하여 지원종료예정

**생활실태**

- ❖ 의정부시 가능 3동 2인 가구
  - ▶ 세대주 박○○씨(30세, 여)는 현재 딸을 양육하고 있음. 세대주 박○○씨 현재 임신 9개월째로 둘째 아기를 출산할 예정임. 남편 이○○씨는 귀금속 제작기술이 있어 귀금속집에서 일을 하다가 8개월 전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빚을 크게 져 채권자들이 집을 찾아오면서 3달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 ❖ 재산은 보증금 2,000천원에 월세를 살고 있음.

**위기상황**

- ❖ 박○○씨는 임신한 몸으로 주 소득자의 가출로 소득을 상실하여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나가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며 둘째가 태어나면 더욱 생계가 막막한 상황.

**신청·지원**

- ❖ 본인이 직접 가능 3동 주민센터에 와서 접수함.
  - ▶ 무한돌봄에서 생계비

**돌봄계획**

- ❖ 출산 때까지 생계비 지원할 예정임. 출산 후에도 어린 자녀들로 근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모자가정으로 생계를 지원 예정임.

### 생활실태

- ❖ 의정부시 송산2동 거주 4인 가구
  - ▶ 김○○씨(33세, 여)남편과 갈등으로 남편이 2008년 1월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무단전출직권말소를 한 상태임.
  - ▶ 김○○씨는 남편과 이혼소송중이나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이혼 소송진행중임.
  - ▶ 현재 김○○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만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와 어렵게 살고 있음.
- ❖ 재산은 113,500천원 정도 임.

### 위기상황

- ❖ 김○○씨는 미용실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으나 겨우 의식주만 해결하는 실정이고 공과금이 연체되어 있음.

### 신청·지원

- ❖ 본인이 직접 의정부 2동 주민센터에 와서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서 지원
  - ▶ 무한돌봄에서 생계비 및 연료비

### 돌봄계획

- ❖ 김○○씨 생계비와 밀린 전기료 및 가스비연체금액에 대한 지원 예정임.
- ❖ 김○○씨의 미용실에 다녀서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를 보살필 수 없는 형편으로 지역복지관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함.

### 생활실태

- ❖ 평택시 ○○동 거주 3인가구
  - ▶ 고등학생인 김○○(16세,남)는 고모부, 고모가 양육하고 있음.
  - ▶ 친모는 과거 외도후 재혼하여 연락이 없으며, 친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임.
- ❖ 재산 없음. 고모부가 차량 행상으로 한달 100여 만원으로 3인이 생활.

### 위기상황

- ❖ 고모가 김○○를 많이 보살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어 보살피기 어려워짐.
-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의 입학금은 어렵게 마련했지만 교복비 마련을 못해 힘들어함.

### 신청·지원

- ❖ 진단지를 보고 무한돌봄 사업을 알게되어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게 됨.
  - ▶ 무한돌봄에서 생계비 지원
- ❖ 친척과 지인을 통해 입학금은 어렵게 마련함.

### 돌봄계획

- ❖ 고모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원치 않기에 현재 생계비를 지급하였지만 앞으로 등록금 납부도 힘들어 보이므로 교육비 지원검토.
- ❖ 김○○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변 복지관의 프로그램연계 추진

##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생활실태

- ❖ 화성시 ○○동거주 2인가구
  - ▶ 길○○(44세)는 처와 이혼 후 2자녀를 키워온 부자가정임.
  - ▶ 딸은 고등학교 입학 후 가출하여 1년 이상 소식이 없음.
  - ▶ 에어컨 수리 등을 하여 자녀를 부양해 왔음.
  - ▶ 보증금 20,000천원에 월세 10만원임.
- ❖ 차량은 화물차와 겔로퍼(94년식) 2대가 있으며 차량가액은 500만원임.

### 위기상황

- ❖ 가구주가 뇌출혈로 쓰러져 2008년 10월 동수원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간병비 없어 자인 길○○(중학교 2학년)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간병을 함.
- ❖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원비가 없어 길○○의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움.
- ❖ 주 소득원인 길○○가 소득이 없어 자녀의 교통비와 생활비가 없음.

### 신청·지원

- ❖ 길○○의 사촌매형이 병원 원무과를 통해 의료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신청.
- ❖ 길○○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지원과 자 길○○를 위해 생계비 지원 결정.

### 돌봄계획

- ❖ 가구주 건강 회복을 위한 병원가 방문간호팀과 지속적 연계.
- ❖ 혼자 남아있는 자 길○○의 돌봄을 위해 새마을 부녀회 도움 요청.

## 생활실태

- ❖ 과주시 금촌2동 거주 3인 가구
  - ▶ 가구주 오○○(50세, 남) 부부는 옷가게 폐업 후 건설현장 일일근로와 식당에서 일일근로로 생활함
  - ▶ 늦게 얻은 딸(초3)이 미숙아로 태어나 6개월간의 치료비 3천만원이 아직도 빚으로 남아있어 부부가 신용불량자가 됨
  - ▶ 이웃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옴
- ❖ 재산은 13년된 승용차와 보증금 1,500만원이 전부

## 위기상황

- ❖ 갑작스런 세대주의 뇌졸중증상으로 얼굴과 한쪽팔에 마비증세로 응급치료만 받고 치료를 하지 못하여 의료지원 혜택이 요구
- ❖ 자녀의 학원비등이 밀려 있고, 주택의 가스비등이 체납되어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난방비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신청·지원

- ❖ 이웃주민이 시 전광판의 홍보 내용을 안내
  - ▶ 무한돌봄에서 생계 및 난방비 지원
- ❖ 생계지원과 연료비 지원 및 차량 정리 후 차상위의료지원

## 돌봄계획

- ❖ 가구원 구성상 지속적인 근로활동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상위 의료특례지정과 아동센터안내
- ❖ 민간이웃돕기 연계 및 일자리로 후견센터 연계로 취업 및 취업교육 연계함

### 생활실태

- ❖ 군포시 군포2동 거주 5인 가구
  - ▶ 가구주 서○○(47세, 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단순노무직으로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이 소득마저 체 때에 못 받고 있음.
  - ▶ 처는 일일고용으로 월 17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자녀 2명, 중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 ❖ 재산은 자동차 3,570천원이 전부임

### 위기상황

- ❖ 가구주인 남편의 50만원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이 소득마저 잘 들어오고 있지 않음.
- ❖ 부인은 일일고용으로 월 17만원 소득이 있으나, 5인 가족에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자녀 2명에 대한 교육비도 못내고 있는 어려운 처지임.

### 신청·지원

- ❖ 군포2동 주민센터에 복지지원에 대한 담당자와의 상담 중에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됨.
  - ▶ 무한돌봄에서 교육비 지원

### 돌봄계획

- ❖ 가장 시급한 밀린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생활을 보장하였고, 향후 위기 해소시 까지 지원

##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 생활실태

- ❖ 광주시 ○○읍 거주 4인 가구
  - ▶ 대상자 유○○(39세, 남)씨는 2008년 11월 15일경 직장일로 출장을 다녀온 후, 아내가 아이들 셋(남 8세, 6세, 4세)을 대상자의 누나에게 맡겨 놓고 집을 나간 사실을 알게 됨. 이후 아내는 연락 두절 상태.
  - ▶ 대상자와 아내는 막내아들 병원비로 수천만원이 들어가자 생활고를 겪어 왔다고 함.
  - ▶ 대상자는 ○○리에서 보증금 50만원/월세 20만원 하는 집에서 거주하였으나, 막내아들 병원비를 충당하느라 월세를 못 내는 바람에 쫓겨나듯이 나옴.
- ❖ 대상자는 용접공으로 일을 하면서 매월 150~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막내아들 병원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여 현재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상태임.

### 위기상황

- ❖ 대상자는 일자리를 구할 동안만 아이들을 누나에게 맡기려 하였으나, 누나가 거부. 아이들을 안양 일시아동보호시설에 맡기려 하였으나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아 데리고 옴. 그러나 당장 아이들과 생활할 주거도 없고 생활비가 없어 막막한 상황임.

### 신청·지원

- ❖ 대상자가 TV 뉴스를 통해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됨. 무한돌봄 사업을 통하여 임시 거처로 지역 여관을 알선하여 주었고, 생계비도 지원함.

### 돌봄계획

- ❖ 대상자와 아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사업과 연계함.
- ❖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주간동안 돌봄.

### 생활실태

- ❖ 광주시 ○○읍 거주 3인 가구
  - ▶ 조○○(51세, 여)씨는 2002년 중반까지 남편의 폭력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두 자녀(여 18세, 남 16세)를 키우며 생활해 옴. 그 해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음.
  - ▶ 2003년 광주시로 전입해 와서, 음식점 주방일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 옴.
  - ▶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큰딸과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둘째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가까스로 충당하며 살아 옴.
- ❖ 재산은 보증금 100만원/월세 25만원의 집에서 살았으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 나오게 되고, 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만원/월세 25만원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기며 얻은 빚만 200만원 있는 상태임.

### 위기상황

- ❖ 2008년 12월경 퇴근 중 피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과 몸에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고, 일자리도 잃게 되면서 약 1달간 소득이 없었음.
- ❖ 2009년 1월말경 주방일을 새로 얻으며, 주인에게서 아들 입학금으로 가불 받은 돈을 새벽에 도난 당함.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게 될 상황.

### 신청·지원

- ❖ 지인을 통해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시청 주민지원과로 유선으로 신청함.
- ❖ 작은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금을 무한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함.

### 돌봄계획

- ❖ 향후 교육청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이 가능토록 연계.

## 빈곤아동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이향란소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

### 1. 들어가기

아동·청소년계가 통합되면서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빈곤아동을 위한 특별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특히나 온 나라가 경제 위기다 아니다하며 갑론을박을 하는 상황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문제를 위기로 느끼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에 이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많은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단순한 급식지원, 소득지원 등에서 벗어나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빈곤아동 지원체계가 이전보다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2. 빈곤아동 지원체계를 위하여

빈곤아동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구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빈곤계층과 빈곤아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난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그렇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며 노력해야 할 일이기애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빈곤아동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안고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 1) 빈곤아동의 개념에 대하여

빈곤아동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빈곤아동은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를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본다면 빈곤선 이하 또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평균가구 소득의 하위 20%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까지 빈곤아동으로 볼 때에는 평균가구 소득의 하위 50%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을 말하기도 한다.

아동과 부모의 빈곤을 등치시킬 것인가?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의 관점에서 보든 구체적으로 빈곤아동은 한부모가정의 아동, 조손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의미하는데 방임아동이나 학대아동 등을 제외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가정의 빈곤만으로 빈곤아동의 개념을 규정한다면 부모가 중산층이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방임아동은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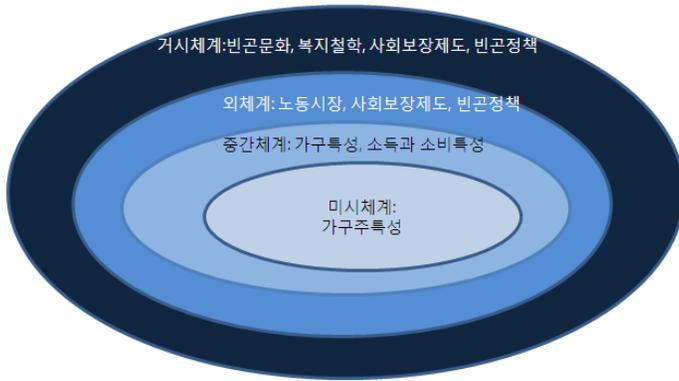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개념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문화적인 결핍상태에 있는 아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자원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된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를 지닌 아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 2) 빈곤아동지원체계에 대하여

### (1) 생태학적 관점의 필요

아동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아동 개인의 특성이나 하나의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생태학은 미시체계, 중간 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한 체계만이 단선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계가 영향을 미쳐 아동빈곤이 유발된다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그림 1)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빈곤

김광웅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나타났듯이, 빈곤한 상황에서도 부모들의 부부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빈곤자체만이 홀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빈곤이 가족 구성원인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정부부처가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혹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빈곤가정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본다. 그러나 빈곤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들이 임시직으로 일을 한다면 빈곤탈출을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를 마련하더라도 임시직, 일용직이 아니라 고정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빈곤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빈곤아동 문제의 해결이란 전체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빈곤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반성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 (2) 합리적 전달체계의 마련

전달체계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통합으로 기왕 논의되기 시작한 전달체계이니만큼 이번에는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시설 현장, 아동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지난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마련한 미래포럼에서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의 역할이나 기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은 상당히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이는 현장의 합의도 구한 바 없거니와, 만일 이렇게 된다면 현장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훤히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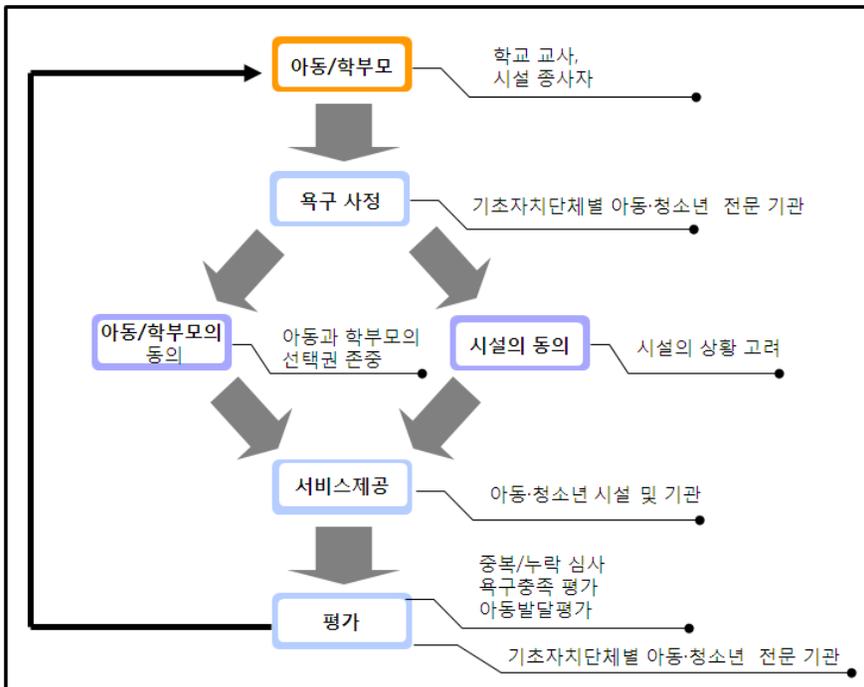
이에 미래포럼에서 제기했던 전달체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과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가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가? 최근 정책을 보면, 맞춤형이니 욕구충족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는 아동과 학부모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

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 있는 빈곤아동의 정책도 빈곤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아동과 부모가 직접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으나 아동을 교육하거나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교사, 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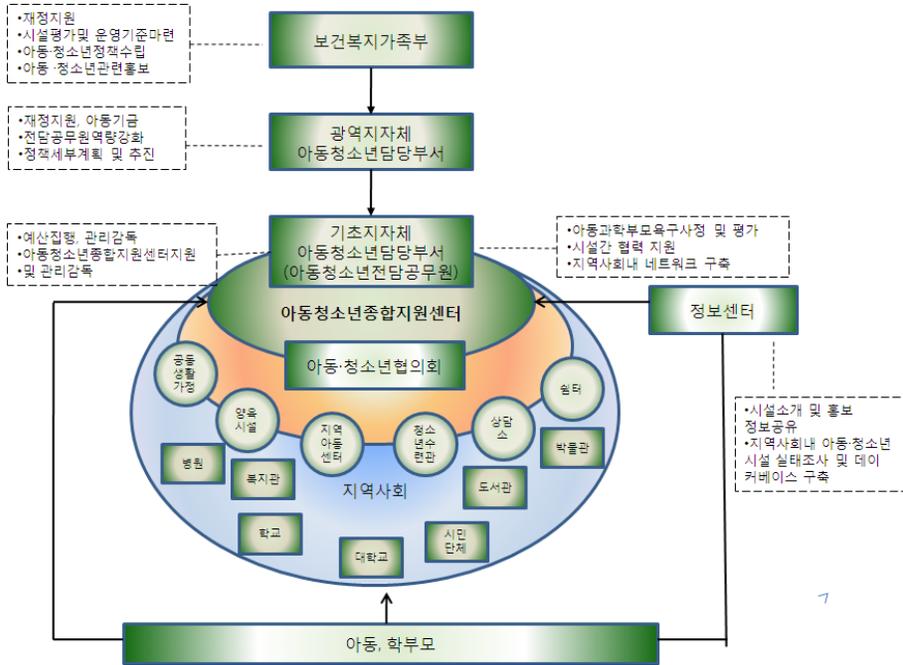
욕구사정이 이루어지면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아동과 학부모의 동의와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다시 이를 평가함으로써 이후 변화된 욕구를 다시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아동과 부모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흐름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를 사정하고 기관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평가하는 곳이다. 이곳은 광역지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별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되면서 전달체계로서 기초지자체에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둘 예정인 바, 이 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기초지자체별로 두고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을 비롯하여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별로 아동·청소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에서 추천하거나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과의 협의없이 인적 자원들이 구성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달체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하였다. 이중 정보센터는 어느 하나의 아동복지시설 정보센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과 부모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을 아우르고 그 안에 있는 각 종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할 수만 있다면 보육시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며, 희망센터와도 논의하여 적절한 역할을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림 3) 전달체계(안)

### 3. 나오며

아동·청소년 통합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뿐 아니라 전달체계 등도 그간의 우리의 경험을 반영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빈곤의 문제는 우리의 경험뿐 아니라 외국의 경험도 면밀하게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이번 정부의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이 집권을 할지라도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건너서 성인의 삶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구나

유낙준회장(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성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홍역이라 생각하고 견뎌봐’, ‘성인이 되기 위한 액땀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해’라는 단순한 한마디로 혹은 ‘통과의례라는 여정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더 붙었다고 뭐들 야단이야’ 라고 하는 고 급관료들의 말소리가 더 합리적인 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평화의 길을 확장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는 요즘이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아픔을 걸만 치료한 후 속으로 파고든 병균을 더 강화한 결과를 갖게 된 오늘 2009년, 복합적인 실물경제위기로 드러나면서 부분의 위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이제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한번쯤은 경험해도 괜찮은 통과 의례로서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요구된다. 성인이 되기까지 아동은 청소년기를 거친다. 성인이 그냥 되지 않는다. 육체적, 정신적인 위기를 치르고서야 성인이 되는 것을 성인된 사람들은 쉽게 잊곤 한다. 그래서 그 성인들은 잊음으로 인해 더 복잡해진 사회일수록 아동과 청소년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한 가지의 고통만 이겨 갈 수 있는 힘만이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두 번째 주어지는 고통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우리 한국사회가 그 남은 몫을 잘 수행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의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이 글은 성인이 되어 잊혀진 기

억을 살려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길과는 달리 지금 위기를 맞은 시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 # 1

집을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망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집안의 일을 집밖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창피한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멍든 살결을 감추고자 나의 온 신경을 짧은 소매를 늘이고자 하는데 썼고 겹으로는 정도 이상으로 웃곤 했다. 그것도 지치면 혼자 있을 때 웃지 않으려고 하고 웃는 사람들이 싫어졌다. 그런 어느 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디 갈 곳도 없었다. 막연히 그러나 살려고 나온 것은 분명하다. 너무 많이 홀로 있었고 인간은 각기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자취하는 친구 집에 잠깐 얹혀 있다가 눈치가 보이고 친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 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자 하여 돌아다녔다. 걸어 다닐 힘도 빠졌다. 배도 고팠다. 거리만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알코올 중독과 같이 거리도 나에게 편안한 약이 되었다. 거리를 자주 다니다가 빠른 속도로 그것에 의존하게 되었다. 세수를 안 해도, 머리를 안 감아도 간지럽거나 따갑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끔 상처 난 곳이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가는 것이 신기했다. 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상처가 나도 쉽게 나았는데, 저쪽에 나와 같은 친구가 있는 듯이 보였다. ‘집 나왔니?’라고는 묻지도 않고 서로 친해졌다. 적어도 그러한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서로 존중하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면 ‘우리가 상처 난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서로 말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처음 그렇게 만난 것이다.

## # 2

우리는 일단 공원의자에서 서로의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한 이후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급격한 속도로 친밀해졌다. 공원은 우리의 집단기억을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의식의 장소이다. 밤에는 추우니까 아침이 오기까지 계속

걸어야만 했다. 멈추면 너무 추웠다. 넓은 역사의 공간과 은행문 안의 공간이 철문으로 닫혀 있는 것이 너무 차가웠다. 역장이나 은행장이 되면 그 철문부터 없애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떨어져 갔다. 걱정이 되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뽕 뜯었다는 예전 학교생활 때 들었던 얘기가 기억났다. 또 한명이 늘어난 세 친구가 모여 결국 뽕을 뜯어 실컷 백반을 사먹었는데 밥을 네 공기나 먹었다. 어리고 착하게 보인 돈을 뜯긴 학생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워 버렸다. 우리 셋은 공원 의자가 베이스 캠프였다. 낮에는 노숙인들이 모여도 있지만 역시 밤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공원의자에 앉아 우리 셋은 얘기를 했는데 처음 만나 친구가 주로 말을 했고 우리의 대장노릇을 했다. 나이가 같지만 정보나 힘으로 서열이 점차 세워졌고 내 입에서 욕이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마다 나왔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던 거리의 학생이 내가 되어 버린 것이다. 공원의자는 나의 Ghetto였다. 계토는 나 자신이 주위와는 다른 우리만의 확보된 공간으로 우리는 그 곳에서 자신을 확인하지만 점차 우리는 그 공원의자에 갇히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인 공원이지만 우리 셋의 의자로 확인되는 시점이 자주 되면서부터 우리는 더 강한 결속을 보이게 되었다. 뭔가를 먹을 때만이 서로에게 대해서 말을 많이 했다. 고독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결속하는 것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친숙함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갇히게 되는 줄 모르고 갇히는 삶이 되었다. 내 주먹이 여린 다른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배를 채웠다. 건물 경비원이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여겼다. 역시 경찰은 내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피하고자 했다. 어쩌면 이 공원의자라는 것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공간임을 느끼게 되면서 아웃리치에서 나온 차량을 보았다. 먹을 것을 준 것이 최고였다. 학교선생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 # 3

아웃리치 차로 인해 우리 셋은 더 결속이 되었고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장은 여학생이 생겨 작은 방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우린 네 명이 함께 그 작은 방에서 함께 쪼그리고 잤다. 때로는 번갈아 편하게 자기도 했다. 우리는 네 명이 되었다. 외부인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끼리만 아는 난해한 말을 주로 하여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 때로는 적극적인 친밀함을 보여줘 우리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쳤다. 혼자 이동하는 것은 싫어했다. 아마도 군집생활이 주는 의존과 집착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이다.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긴장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타인이 우리 집단에 접근을 하면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대면했다.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유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어느덧 우리는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 드랍인 센터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결속력이 점차 약화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대장이 다른 여학생을 좋아하면서부터였다. 나도 한 여학생이 좋아졌는데 그녀는 대장이 사귀었던 여학생이다. 이때부터 틀어박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힘을 갖게 되었다. 내 속에 그것이 숨어 있는 줄을 나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그랬다. 알바를 해서 작은 방을 얻었다. 그 여학생과 같이 지냈다. 주거공간의 소유적 성질 때문에 이 작은 쪽방이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 빨리 이 쪽방에서 나가고 싶어졌다. 그 시점에 돈이 떨어지니 그 여학생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단기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 # 4

먹고 자고 옷 입을 곳이 바로 단기쉼터였다. 검정고시학원도 보내 주고 직업탐색작업도 도와주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속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어디서 오는 것인 줄도 모르고 나는 갑자기 화를 내곤 했고 말마다 욕을 수없이 하곤 했다. 축구와 문화체험 등이 기억에 남는다. 단기쉼터의 직업자활을 재미있게 마치고 알바를 했는데 세 달을 다닌 친구가 단 한 명

뿐이었다. 다들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성질을 다스리는 긴 여정이 나에게 필요함을 나 스스로 느꼈다. 그래야 제대로 살 듯 했다. 지금은 장기쉼터에 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가끔 드랍인 센터에 가 보면 내 예전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들을 보니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 생각을 잊어 본 적은 없지만 들어갈 상황은 아직도 멀다고 여겨졌다. 홀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다짐한다. 개인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각자의 희망은 외부와 미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면서부터 개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경험의 결핍으로 인해 이전에 갖지 못하던 자신감을 발견한 것이 이 여정 속에서의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집을 나와서 겪는 얘기를 경험적으로 풀어서 적어 보았다. 2009년도의 복합적인 위기에서 집을 나온 친구들이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다른 엉뚱한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을 정밀하게 보고 강화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하드웨어의 강화가 일차적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아웃리치만해도 홍콩에는 24개나 있는데 한국은 단 두 곳뿐이다. 드랍인 센터도 곳곳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단기쉼터는 한 달 이내의 거주하는 곳으로 상정하여 사정하고 상담하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쉼터는 20살까지 머물면서 자기 자신의 생존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제 언

1. 한국사회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생활에서의 경험을 하는 곳이 청소년쉼터입니다. 최근에 청소년쉼터에 들어오는 가출한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청소년가출에 대한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은 과거 자신이 지닌 청소년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기억으로 지금의 청소년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지금 현실의 청소년은 과거보다 시간이 다르

고 사회 경제적 경험이 다른 상황의 청소년이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제위기에서의 청소년가출은 예전의 가출과는 같지만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가출을 볼 때 가출 이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이미 가출 이전에 가출할 수밖에 없는 제 조건과 상황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출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가출 이전에 이미 문제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출 이전과 가출상황과 가출 이후의 과정으로 삶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출한 그 정황만 가지고 보아서는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출은 가출 이전의 개인과 가족과 학교와 친구, 사회 등 제 관계의 종합결과물이기애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3. 가출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집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출을 무슨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가출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출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출은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집에서 없으면 부모님에게 큰 짐을 덜어드리는 듯하여 가출한 청소년이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 청소년이 문제있는 청소년인가요? 또한 성폭력하는 아버지 아래에서 가출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요? 가출하여 나온 청소년이 문제있는 청소년인가요? 최근의 경제위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가출요인을 형성할 것입니다.

4. 아웃리치센터 드랍인센터는 위기시 가출한 청소년을 초기에 만날 수 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700만 도시의 홍콩은 24개의 아웃리치센터가 있는데 5000만의 한국은 서울과 대전 두 곳뿐인 아웃리치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두 곳씩과 서울에 몇 개 추가하

여 최소한 40여곳의 아웃리치센터와 드랍인센터가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단기쉼터는 아웃리치센터와 드랍인센터에서 초기 만난 청소년의 욕구를  
분별하여 사정하는 기간으로의 쉼터로 남녀 구분하여 80곳 정도로 상담원의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쉼터가 가장 열악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방  
15개 정도의 다가구 주택을 쉼터의 하드웨어로 하는 것이 요청되는 시점입  
니다. 남녀로 구분하여 80개의 다가구 주택이 설정되어 중장기 쉼터의 정형  
화가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사례 유형별 쉼터가 상정되어야 합니  
다. 치료형 쉼터가 세워지는 것은 중장기 쉼터의 방향을 세우는데 매우 중  
요한 시사입니다

◆ 연구진 ◆

-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 김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세미나 자료집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인 쇄 2009년 2월 27일

발 행 2009년 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 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